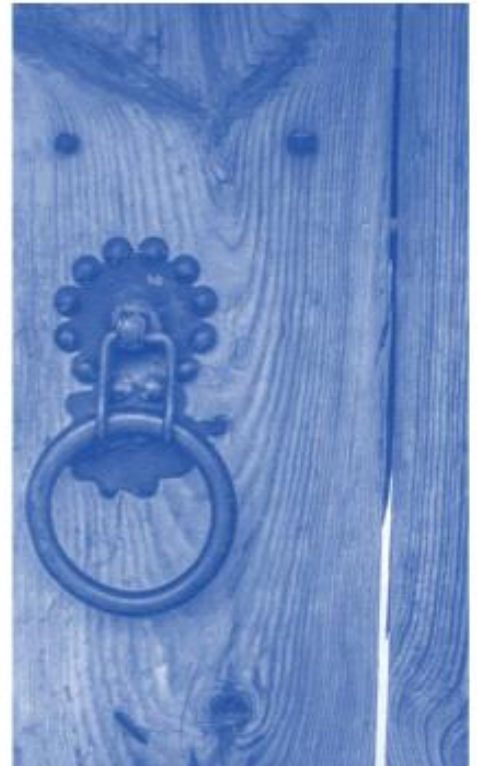


20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추진계획 용역 결과보고서

문화재 안내판 종합정비



SUSEONG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출문

수성구청장 귀하

이 보고서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수성구 문화재 안내판 종합정비 추진계획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09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김지현

수성구 문화재 안내판 종합정비 추진계획 용역

- 목 차 -

1. 사업의 개요	1
가. 사업의 목적과 대상	1
나. 작업의 과정	1
다. 개선안 작성의 방향	2
라. 세부 원칙	2
마. 토의 및 건의	2
바. 문화재 사업 관련 건의 사항	3
<첨부1> 수성구 소재 문화재 관련 용역 사업 회의자료	4
<첨부2> 문화재별 정보 확인 및 수정 사항	9
<첨부3> 수성구 소재 문화재 안내문 개선 작업의 세부 원칙	12
2. 수성구 소재 문화재 안내문 개선안 원고	15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목적과 대상
- 나. 작업의 과정
- 다. 개선안 작성의 방향
- 라. 세부 원칙
- 마. 토의 및 건의
- 바. 문화재 사업 관련 건의 사항



*무동제

가. 사업의 목적과 대상

- 1) 목적: 수성구 소재 문화재 안내문 개선
 <첨부 1> 수성구 소재 문화재 관련 용역 사업 회의 자료(2022년 2월 11일, 수성구청)
- 2) 대상: 39개 문화재
 - 대구시 지정 문화재 11개(유형 3, 기념물 4, 문화재자료 4)
 - 수성구 향토 문화유산 28개

나. 작업의 과정

- 1) 문화재별 기초 자료 확보
 - 현장 답사를 통한 기존 안내문 및 각종 편액(扁額) 자료 촬영, 입력, 번역
- 2) 기존 안내문의 개선점 추출
 - 내용의 통일성과 적절성, 규범성
 - 문화재청 문안 작성 원칙 준수 여부
 - 문화재의 기본 정보, 성격, 가치 파악
- 3) 1차 문안 및 개선안 초고 작성
 - <1차 문안> 작성
 - 사실(史實)의 명확성과 정보의 정확성 확인: 문헌 및 인터넷 자료의 비교
 - 한문 편액 자료(원문/번역문),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정, 보완
 <첨부 2> 문화재별 정보 확인 및 수정 사항
 - <개선안 초고> 완성
- 4) 중간 보고회 보고 및 토의
- 5) 자문 및 교정
 - 자문 위원 : 이문기(한국사 전공, 문학박사,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장,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교정 위원 : 박소은(국어학 전공, 국어교육학 박사, 경북대학교 강사)
- 6) 최종 보고회용 원고 작성
- 7) 최종 보고회 보고 및 토의
- 8) 최종 원고 완성

다. 개선안 작성의 방향

- 1) 문화재의 성격과 의미, 가치가 쉽고 재미있게 읽힐 수 있도록 작성
- 2) 관련 사실[역사, 문화, 지리, 언어]에 부합하도록 작성
- 3) 문화재청의 '안내문 가이드라인'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
- 4) 더 쉽고 바른 문장, 간결한 표현과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로 작성
- 5) 건축물의 경우 전문적인 건축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대로 생략함.

라. 세부 원칙

- 문화재 안내문의 형식이나 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원칙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련 각종 지침 및 사례집을 기준으로 함.

<첨부 3> 수정구 소재 문화재 안내문 개선 작업의 세부 원칙

마. 토의 및 건의

- 소재지 명기 여부: 문화재청 지침에는 '명시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수정구 내 안내판에는 통일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영문 번역
 - 우리말 원문 전부를 번역하지 않고 발췌 번역해도 됨.
(2018 문화재청 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 18쪽)
 - 직역에서 탈피하여 적절히 의역, 필요할 경우 영문 번역을 위한 문안을 따로 만든다. 외국인 처지에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한눈에 알아보는 문화재 안내문 바로쓰기(문화재청)> 12쪽)
- 고산서원은 강당이 복원된 후, 법이산 봉수대와 성산 봉수대는 발굴, 복원이 완료된 후 관련 기록을 추가해야 함.
- 문화재 명칭 변경 건의
 - 사월동 지식묘군: 비지정 문화재에 '사월동 지식묘-1'이 있어서, 이 둘을 구별하면서도 공통점을 살리려면 이 문화재는 '사월동 지식묘군 1'로 하고, 비지정은 '사월동 지식묘군 2'로 하는 것이 좋겠음.
 - 이공제비(李公堤碑) 및 군수 이후범선 영세불망비(郡守李侯範善永世不忘碑) → 이공제비(李公堤碑)와 이범선 영세불망비(李範善 永世不忘碑)
 - 덕봉선생 장공 유허비각 → 아산 장씨 덕양단

- 사월동 지식묘-1 → 사월동 지식묘군 2
- 효열 밀양박후성처 성주배씨지려비 → 성주배씨 효열 정려비
- 정충각과 정효각 → 청주정씨 정충각과 정효각
- 효자각(中和楊氏 孝子閣) → 중화양씨 효자각(中和楊氏 孝子閣)

바. 문화재 사업 관련 건의 사항

1) 누리집의 문화재 관련 정보 안내 시스템 정비

- 수성구청 누리집의 문화재 설명 문안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 설명 문안의 내용은 현지 안내문과는 달리, 이 개별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재 관련 안내, 설명, 정보가 효과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사이트와 자료 간의 링크 작업이 필요함. 수성구 홈페이지 자료-현장 안내문-문화재 관련 각종 보고서 및 자료

2) 문화재 부속 한문 자료 조사 및 번역 정리 작업

- 전통 건축 문화재에 부속된 각종 편액 자료 및 비문 등 한문 기록 자료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입증하는 보조 자료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재임.

예) <퇴도 이선생 우복 정선생 강학 유허비>(고산서당), <재실 연혁>(덕산재), <독무암서 상량문>·<독무암서 중건기>(독무재), <채제공 신도비명>·<무릉서당기문>·<(중종) 사제문>(오천서원), <정효각기>·<정충각기>·<정려 편액>(정충각과 정효각), <지행당 상량문>·<봉산서원 중건기>(봉산서원), <하효자 정려각 중건 기문>(하효자 정려각), <명정각 정려기>(명정각), 양희지의 시판(학산재)

- 문화재별로 관련 한문 자료를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번역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 작업은 문화재의 내용과 가치를 파악하고 안내하는 일뿐 아니라 유사시 문화재나 한문 자료 자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임.

1. 안건

- 가. 용역 사업의 내용 범위 및 계획 확정
- 나. 관련 필요 사업 검토

2. 문화재 안내판 내용 개선 사업 계획

- 가. 사업명: 문화재 안내판 내용 개선
- 나. 사업의 내용: 수성구 소재 문화재 안내판에 제시된 안내문의 내용 개선
 - * '안내판 종합 정비 계획 용역'
- 다. 대상 문화재: 시지정 문화재(14)와 문화재 자료(4), 향토 문화유산(비지정, 34) 중 안내판이 있거나 필요한 것을 선정함. (논의 필요)
 - * 시 지정 문화재(14), 문화재 자료(4)는 모두 수성구청 관광과 홈페이지에 안내문과 함께 관리되고 있음.
 - * 비지정(향토 문화 유산) 34개 중 24개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있지만 10개는 없음. '수성구 문화유산 총람'의 '향토 문화유산'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24개와 같음.

라. 세부 유형

- 1) **신규 작성**: 비지정 문화재 중 안내판 미설치 문화재는 안내문을 신규 작성함.
예) 돈목재(敦睦齋, 만촌동, 달성하씨 봉사공파)
- 2) **재구성/재작성**: 기존 안내문의 내용을 재작성하거나 보완하여 재구성함.
예) 모명재(慕明齋), 명정각(命旌閣)
- 3) **윤문 및 교정**: 기존 안내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다듬고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바로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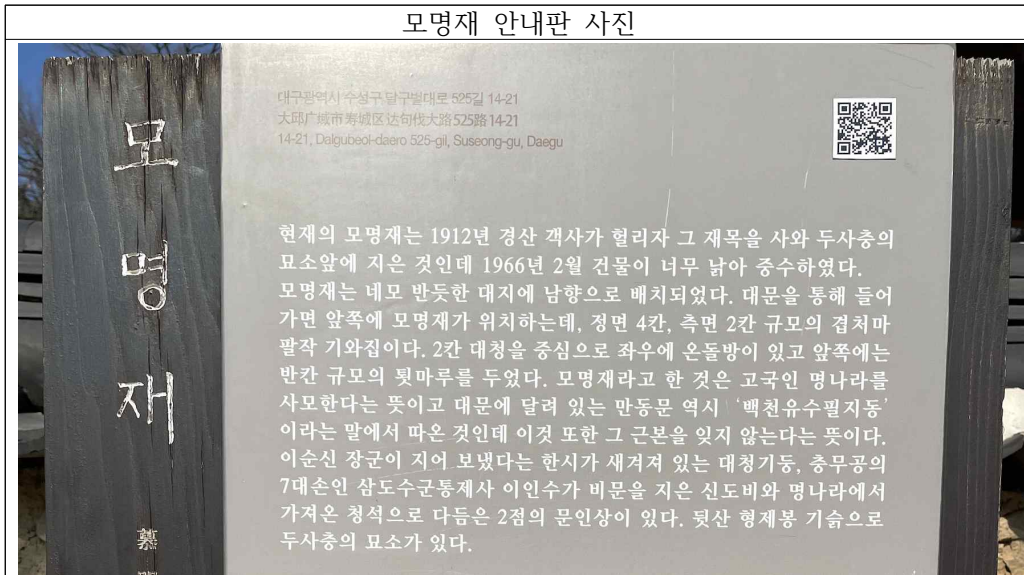
마. 내용 개선의 주요 기준과 방향

- 1) 문화재의 성격과 의미,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2) 관련 사실(역사, 문화, 지리, 언어)에 부합하도록 작성
- 3)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안내문 가이드라인'에 맞는 규격과 양식으로 작성
- 4) 더 쉽고 바른 문장, 간결한 표현과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로 작성

바. 유형별 사례

- 1) 재구성: <모명재(慕明齋)>
 - ㄱ) 현재의 안내문: 현재의 모명재는 1912년 경산 객사가 헐리자 그 재목을 사와 두사충의 묘소앞에 지은 것인데 1966년 2월 건물이 너무 낡아 중수하였다. 모명재는 네모 반듯한 대지에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대문을 통해 들어가면 앞쪽에 모명재가 위치하는데,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 기와집이다.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

방이 있고,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툃마루를 두었다. 모명재라고 한 것은 고국인 명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이고 대문에 달려 있는 만동문 역시 '백천유수필지동'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 이것 또한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순신 장군이 지어 보냈다는 한시가 새겨져 있는 대청 기둥, 충무공의 7대손인 삼도수군통제사 이인수가 비문을 지은 신도비와 명나라에서 가져온 청석으로 다듬은 2점의 문인상이 있다. 뒷산 형제봉 기슭으로 두사충의 묘소가 있다.



ㄴ) 개선점

○ 내용 구성

- 내용 연결성과 통일성이 부족함.
- 여러 차원의 내용이 순서 없이 섞여 있어서,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개요-공간 물리적(/건축학적) 특징-역사 문화적 의미와 가치' 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어법

-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있고,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툃마루를 두었다. (→ 툃마루가 있다.)
- 이순신 장군이 지어 보냈다는 ~ 청석으로 다듬은 2점의 문인상이 있다.(→ 이 재실 안에는 ~ 등의 부속 유물이 있다.)
- 뒷산 형제봉 기슭으로(→기슭에)

○ 규범: 네모 반듯한(→네모반듯한), 반칸(→반 칸), 묘소앞에(→묘소 앞에)

ㄷ) 개선안

(개요) '모명재'(慕明齋)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월병으로 왔다가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杜思忠)을 기리고 그 묘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1912년에 지은 재실이다. 같은 해에 경산 객사(고을마다 있었던 관사)가 헐렸을 때 두사충의 후손들이 그 목재를 가져와 이 재

실을 지었다고 하는데, 현재의 건물은 1966년 2월에 중수한 것이다.

(건축학적 특징) 이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기와집인데, 2칸 대청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각각 온돌방이 하나씩 있고, 앞쪽에는 반 칸 넓이의 툇마루가 있다.

(의미, 가치, 이야기) 재실 이름인 ‘모명재’는 고국인 명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 대문 현판의 ‘만동문’(萬東門)은 ‘백천유수필지동(百川流水必之東, 모든 하천은 동으로 흐른다.)’에서 따온 것으로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겠다는 두사충의 마음을 담고 있다. 두사충은 해전에 참여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만났고 두 사람은 서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두사충에 감동하여 ‘봉정두복야’(奉呈杜僕射)라는 제목의 한시를 지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건물 기둥에 주련(柱聯)으로 새겨져 있는 글귀가 바로 이 한시이다.

2) 재작성: <명정각(命旌閣)>

ㄱ) 현재의 안내문: 조선 순조 23년(1823)에 태어나 고종 30년(1893)에 세상을 떠난 두한필(杜漢弼, 두사충의 7대손)의 효행을 알리기 위하여 조정에서 정려(旌閭)를 내린 것이다.

ㄴ) 문제점: ‘정려각’이라는 건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조정에서 정려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ㄷ) 개선안: 두사충의 7대손인 두한필(杜漢弼, 1823~1893)은 뛰어난 효행으로 조정으로부터 정려(旌閭)를 받았다. ‘명정각(命旌閣)’은 그 내력을 기록한 현판과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정려각이다.

사. 활용 가치: 문화재 공간 내의 안내판 개선, 홈페이지의 안내문 및 관광 홍보물의 내용 개선

아. 추진 계획(일정)

- 1) 현황 파악 및 유형 분류(3월)
- 2) 내용 개선안 초안 작성(4월~6월)
- 3) 초안 윤독 및 자문, 보고회의(필요시)(7월)
- 4) 개선안 최종 완성 및 확정(8월)

자. 연구팀의 구성

- 책임연구원: 이문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공동연구원: 박영호 (인문대학 한문학과 교수)
권성도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곽명재 (인문대학 한문학과 강사)

3. 관련 필요 사업의 제안

가. 사업명: 문화재 관련 한문 자료 기초 작업

나. 내용과 현황, 필요성

- 1) 문화재 공간 내부에 산재하는 각종 자료(현판, 기문 등 주로 한문 자료임)에 대한 전수 조사, 번역, 정리, 활용 방안 모색
- 2) 문화재 공간 내에 게시되어 있는 각종 현판과 기문 등의 현황은 물론이고 내용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음.
- 3) 이들 한문 자료는 그 자체로 보존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자료에는 해당 문화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화재의 내용과 가치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초 작업이 필요함.

다. 기초 작업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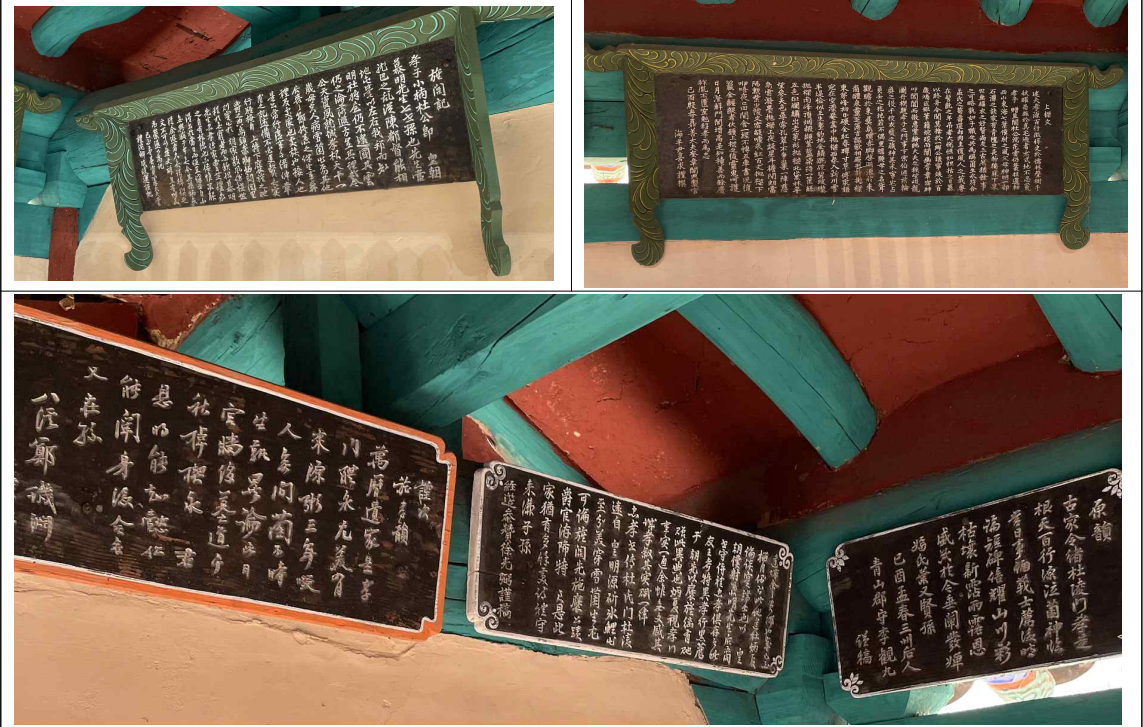
- 1) 현황 조사: 문화재 내외부에 게시된 자료 전수 조사

문화재에는 건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현판(懸板)이 처마에 게시되어 있고, 내부에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문(記文), 상량문(上樑文), 시판(詩板)이 게시되어 있으며, 간혹 기둥에 주련(株聯)이 게시된 경우도 있다. 기문이나 상량문에는 건축물의 창건, 중건, 이건(移建), 중수(重修) 등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시판에는 원시(原詩), 차운시(次韻詩)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주련에는 시구(詩句)나 경전(經典)의 구절 등이 게재되어 있다. 건물의 내외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문화재 자료의 현황이 파악되어야 한다.

모명재 현판자료 사진



명정각 현판자료 사진



2) 자료 정리: 사진 촬영, 원문 입력, 번역 및 해제.

문화재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해독하는 한편 원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현장 자료에 대한 사진 촬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문화재 관련 자료가 대부분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원문을 입력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번역과 함께 건물이나 당실(堂室)의 명칭에 대한 해제와 설명도 곁들여야 할 것이다.

3) 자료 활용: 서적으로 출판, 구청 홈페이지에 탑재.

조사와 정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총서 형태의 서적으로 출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개별 문화재에 대한 안내를 위해 리플릿 형태의 자료로 가공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정리된 자료 전체를 구청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온라인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첨부2>

문화재별 정보 확인 및 수정 사항

○ 고산서당

- 원래의 목적이 문중 서재였을 가능성: 수성구 <서원(당) 재실: 61쪽> 처음에는 문중 서재였던 것으로 추정함. ⇨ (문중 자료) 처음부터 강학을 위한 서재였음.
- 동고 서사원(東皐 徐思選)을 추가 배향하기 시작한 시점: 2020년 복원 후
- 고산서당이 서원이 된 시점. 현재는 ‘연려실기술’ 등에 따라 숙종 16년(1690)으로 되어 있으나, 『국역 대구부읍지』, <부록2>, 「경상도 경산현읍지」(478쪽)에는 ‘만력 계유년(1693)에 진사 한홍익 등이 서원 건립을 창의(唱議)하여 문순공 퇴계 이황의 위패를 봉안하고 또한 문장공 우복 정경세의 위패를 배향하였다.’라고 되어 있음. 이 기록을 따른다면 이 연대는 숙종 19년(1693)으로 수정되어야 함.
⇨ 두산백과 등 대부분의 자료(최근의 홍보 자료 등)에 1690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안에는 그대로 두기로 하고, 뒤를 보기로 함.

○ 대구부 수성비

- 대구읍성 철거 연도: 기존 안내문에는 1906년으로 되어 있음. ⇨ 1905년에 철거 시도, 본격적 철거는 1906년에 시작, 철거 완료는 1907년.

○ 덕봉선생 장공 유허비각

- 유허비 건립 연대 : 비문과 ‘덕양단기’ 확인 ⇨ 1927년

○ 덕산재

- 최초 목적(처음부터 장자원의 우모소) ⇨ <중수기(重修記)>에 의하면 ‘곡계정사’(문중 서당)가 처음임. 장자원을 기리고 그 제단을 관리하고자 등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음.
⇨ 장자원을 비롯한 선조의 덕을 기리고 제단을 관리하는 곳
- 장자원의 아버지 이름: 기존 안내문에는 苻(우)로 되어 있으나 수성구 누리집에는 감찰 ‘간(竿)’으로 되어 있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장간(蔣竿)”으로 되어 있음. 덕양단의 제단에는 ‘苻’(벗짚 간)으로 되어 있음.
⇨ 덕산재 안내문에는 덕봉의 아버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덕양단 안내문에 제단을 소개할 때 장간(蔣竿)을 언급함.
- 곡계정사 건립 연대: 기존 안내문과 수성구 누리집 등에는 영조 17년(1740년)으로 되어 있음. ⇨ ‘재실 연혁(齋室沿革)’에서 1740년 확인. 1740년은 영조 16년임. ⇨ 영조 16년(1740)으로 확정함.

○ 독무재

- 최초 위치 및 이건 연혁: <중건기>와 상량문 등을 통해 내용 확정함.

○ 명정각

- 건립 연대: 1912→1913 * 모명재와 같음.

○ 모명재

- 건립 연대: 기존 안내문에는 1912년으로 되어 있음. ⇨ 편역 자료를 통해 1913년으로 수정함.

○ 무동재

- 최초 건립 연대 : 수성구서원(당)재실 기초 조사의 기술에 따라 1900년으로 명기함.

○ 미즈사키 린타로(水崎林太郎)의 묘

- 수성못이 조선시대에 이미 있었고, '수성못 조성 공사'는 실제로는 확장공사라는 주장 제기.
⇨ 「그곳, 수성못」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둔동제'는 다른 못이고 주택 공사 등으로 메워졌을 것을 추정함.
- 미즈사키의 역할이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 '수성못 축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으로 수정함.

○ 봉산서원

- 건립 연도, 서원 승격 연도, 휘철 연도, 복원 연도 등이 모두 불명확함. 기존 안내문에는 1966년에 복원된 것으로 기술됨. ⇨ <봉산서원중건기>, <봉산서원 지행당 상량문>, <경모재 기문> 등을 통해 1967년에 경모재가 재건되었음을 확인함.

○ 솔일재

- 중건 시점: <솔일재 중건기>에서 1997년 재건되었음을 확인함.

○ 야수정

- 기존 안내문은 '진씨'의 본관을 명기하지 않음. ⇨ 손녀와의 인터뷰를 통해 풍기 진씨임을 확인하고, 이 건물이 재실이 아니라 가옥형 정자라는 것, 지은 사람이 진희규(秦喜葵)임을 확인함.
- 진희규(秦喜葵)는 일제 강점기 대구 부호의 한 사람으로 수성못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 중 하나인데, 수성구청 누리집 등 각종 자료에 '진희채(秦喜菜)'로 잘못 기록하고 있음. (손녀로부터 진희채의 인장 사본을 받아서 확인함.)

○ 영사재

- 배석봉과 배영의 관계 : <영사재기>를 통하여 종숙질(從叔姪) 관계임을 확인함.
- 기존 안내문에는 정려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는 "정려되었고 호세가 감면되었는데, 이런 행적이 삼강행실록과 대구읍지에 실려 있다."고 기술함. ⇨ 『공천집(孔川集)』의 「가장(家狀)」과 「행장(行狀)」에 정려를 받고 호세가 감면되었다는 기록이 있음. <대구읍지>에서 고종 29년(1892)에 정려가 결정되었음을 확인함.

○ 오천서원

- 건립, 복원, 중수 연대 불명확 : 체제공의 신도비명, <서원중건운> 등을 통해 중건 연도가 2009년(기존 안내문)이 아닌 2010년임을 확인함.
- 기존 안내문에는 '사제문(賜祭文)'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중종대왕 사제문」과 양희지의 문집 『대봉선생문집(大峯先生文集)』 권3 <부록> 「賜祭文」의 내용에 따르면 정덕(正德) 2년 정묘년(1507) 11월에 사제문을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충각과 정효각

- 정려를 받은 시점 : 수성구 누리집과 <정효각기>에는 1892년(고종29)에 정려가 내린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 정효각의 '명정(命旌)' 현판에 의해 고종 30년(1893)이 정려를 받은 정확한 시점임을 확인함.

○ 청호서원

- 손처놀이와 손린(봉산서원)의 관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구지역 서원의 현황과 활용 방안> 등의 기술에 차이가 있음. ⇨ <문탄손선생과 봉산서원>(13쪽)에 '종질(從姪) 모당(慕堂)에게 기서하여--'라는 표현이 나옴. 종질-당숙 관계로 확정함.
- 『청호서원과 영모당실기』(10쪽)에는 1864년 휘철 이후, 1930년에 '청호서원 재건립'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때는 강당만 재건되었을 뿐 서원 복원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청호서당기>를 통해 1930년에는 '청호서당'으로 복원된 연대라는 것을 확인함.

○ 하효자 정려각

- 정려비를 세운 시점 : 정려비를 통해 정조 5년(1781)임을 확인함.
- 중건기문 쓴 시점과 쓴 사람: <중건기문>의 해독을 통해 1784년에 하시찬이 쓴 것임을 확인함.

○ (중화양씨) 효자각

- 기존 안내문에는 효자각 건립 연대를 고종 신묘년(辛卯年) 1891년경으로 기술하고 있음. ⇨ 여러 자료를 통해 1891년은 정려를 받은 연대임을 확인함.

<첨부3>

수성구 소재 문화재 안내문 개선 작업의 세부 원칙

* 이 '세부 원칙'은 <한눈에 알아보는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문화재청·국립국어원)를 바탕으로 하되,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한 것임.

1. 표기 문자: 한글. 필요한 경우 한자 병기

- 한자는 안내판의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와 인물, 지명, 문화재 명칭 등 특별한 경우 말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 의미를 전달하고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의 표기 여부는 안내 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 ⇒ 문화재명, 인물명, 주요 용어는 한자를 병기함.

2. 안내문 구성

- <한눈>의 내용 체제 구성에 대한 권장(안)
 - 제목: 명칭(국어, 한자, 영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영문(비지정은 생략)
 - 본문: 규모(크기, 높이, 길이, 두께 등)와 건립 연도/연혁 및 유래/역사적 문화적 가치/ 관련 설화, 전설, 민담/주요 관람 포인트/
- 첫 문장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해당 문화재의 기능, 유래, 특징,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우선으로 설명한다.
- 해당 문화재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
-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설화, 전설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근래의 사실이나 이야기라 할지라도 관람객에게 재미나 감동 또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첨가한다.
- 안내 문안 안에서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풀이하여 설명한 후에 기술한다.
- 문화재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생략한다.

⇒ '개요-관련 인물 이야기-구조물 관련 정보'로 구성하되, 개별 문화재의 특성과 기존 안내문에서 강조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융통성 있게 구성함. 특히, 건물 자체가 연대적으로, 혹은 건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건축학적 특징 등을 중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함.

- 개별 문화재(건물 건립 연도, 문중)에 따라 내용의 주안점이 차이가 있음.: 건물 자체에 초점/관련 인물이나 얽힌 이야기에 초점 등
- 많은 지방 문화재의 경우 건물이나 기념물 그 자체보다는 관련 인물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음.

3. 표기와 형식의 통일

- 제목 부분
 - 국어(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 소재지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수정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표시할 수도 있음.)
- 대구광역시 지정 유산의 경우 지정 번호는 밝히지 않음.
- 본문은 문단별로 들여쓰기.
- 책 명은 『대봉집』으로 통일함.
- 본문에서 베풀지 못한 부연 설명은 각주(*, **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 형식으로 혹은 해당 용어에 위첨자 형식으로. ⇨ 위첨자는 조금만 길어져도 곤란함. 각주 형식이 좋겠음.
- 출생 및 사망 연도
 - 유적과 직접 관련된 인물명에만 한자를 병기하며 인물의 사망 연도와 출생 연도 등은 표기하지 않는다.(같은 규범의 다른 쪽)
 - 문화재안내판에는 역사 인물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만 표기하되, 이 경우에도 주변 인물들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다. 생몰연도를 표기할 때는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할 수도 있다. 한자와 함께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자 다음에 표기한다.
⇨ 문화재와 직접 관련된 인물의 생몰 연대는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정확하게 파악되는 경우에 한하여 표기함. 표기 방식- 하륜(河崙, 1347~1416)
- 인물의 호는 되도록 표기하지 않으며, 호가 성명과 함께 쓰여 인물을 부연 설명하거나 성명을 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표기할 수 있다. 이때 한자는 해당 단어 뒤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와 성명을 모두 표기할 때는 성명 뒤에 한꺼번에 적는다.
 - 일두 정여창(一蠹 鄭汝昌)
- 인물을 지칭할 때는 가능하면 호 대신 이름을 사용하기로 함.
- 인물명 뒤에 ‘선생’ 등의 별칭은 붙이지 않는다.
- 왕조 연대와 왕명 다음에 서기를 표시하며(조선 영조 16년(1740)) 같은 왕조 연대, 재위 기간에는 국호와 연호를 거듭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왕조 연대나 왕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또한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 한자어 외에 외래어는 어원을 밝히지 않음.
- 방향 표기
 - 안내 문안에서 방향 표시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문화재를 직접 가리는 위치에 안내판이 놓이지 않도록 관람 동선과 동떨어진 곳에 안내판을 둘 경우의 방향 기준은 현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이며, 현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수성구 문화재 안내판 종합정비 추진계획 용역
수성구 소재 문화재 안내문 개선안 원고

대상 문화재 목록과 차례

<대구시 지정 문화재>

○ 고산서당(문화재자료)	22
○ 노변동 사직단(기념물)	24
○ 대구부 수성비(유형 문화재)	26
○ 독무재(문화재자료)	28
○ 법이산 봉수대(기념물)	30
○ 사월동 지식묘군(기념물)	32
○ 상동 지식묘군(기념물)	34
○ 야수정(문화재자료)	36
○ 영영축성비(유형 문화재)	38
○ 이공제비 및 군수 이후범선영세불망비(유형 문화재)	40
○ 하효자 정려각(문화재자료)	42

대상 문화재 목록과 차례

<비지정 향토 문화유산>

○ 나야 대령 기념비	46
○ 국조단군성전	49
○ 덕봉선생 장공 유허비각	51
○ 덕산서원	52
○ 덕산재	54
○ 명정각	56
○ 모명재	58
○ 무동재	61
○ 미즈사키 린따로의 묘	63
○ 봉산서원	65
○ 사월동 지석묘-1	67
○ 상동 청동기 마을	69
○ 성산 봉수대	71
○ 성산재	72

대상 문화재 목록과 차례

<비지정 향토 문화유산>

○ 성주배씨지려비	74
○ 솔일재	76
○ 영남제일관	78
○ 영모재	80
○ 영사재	82
○ 오천서원	84
○ 옥수천 공룡 발자국	86
○ 이득심 송덕비	88
○ 정충각과 정효각	89
○ 청호서원	91
○ 충효재와 모운당	93
○ 파동 바위그늘 유적	95
○ 학산재	97
○ 효자각(중화 양씨)	99

대구광역시 지정 문화재



*노변동 사직단

■ 고산서당

고孤 산山 서書 당堂	기존 안내문
	<p>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산 22 Daegu Cultural Property Material No. 15. San 22 Seong-dong, Suseong-gu, Daegu</p> <p>이 서당은 언제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퇴계 이황^{1501~1570} 선생과 우복 정경세^{1563~1633} 선생이 이곳에서 강론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500년대에 이미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당은 1690년^{숙종16} 퇴계·우복 두 선생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지은 뒤 고산서원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으며¹⁾, 1734년^{영조10}에는 강당 및 동·서재를 새로 지었다. 그 뒤 1868년^{고종5}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 철거된 것을 1879년^{고종16} 옛 터에 강당만 다시 지어 고산서당이라 하였다. 서당 뒤쪽의 옛 사당 터에는 퇴계와 우복 선생의 강학 유허비가 자리잡고 있다.</p>
	개선안
	<p>고산서당(孤山書堂)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p> <p>고산서당은 처음에 서재(書齋)로 건립되었다가 서원과 서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학 교육 기관이자 선현을 제향(祭享)하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곳이다. 건립된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과 우복 정경세(愚伏 鄭經世, 1563~1633)가 이곳에서 강론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50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고산(孤山)’이라는 이름도 퇴계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이라고 한다.</p> <p>이 서당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재건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오다가 숙종 16년(1690)부터 퇴계와 우복을 배향하는 서원이 되었다. 이후 영조 10년(1734)에는 강당과 동·서재를 새로 지어 서원으로서의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서원 철폐령으로 고종 5년(1868)에 훼손되었다가 고종 16년(1879)에 강당만 재건되면서 고산서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p> <p>1964년에 강당 건물을 중수하였고, 2020년에는 사당과 삼문, 담장을 세워 옛 서원의 모습을 다시 갖추고, 동고 서사선(東皐 徐思選)을 함께 배향하게 되었으나 2021년 12월 20일에 화재가 일어나 강당이 불에 타고 말았다. 지금의 강당은 그 뒤 ○○○○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사당 담장 안에 세워져 있는 강학(講學) 유허비(遺墟碑)와 강당 뒤편의 두 그루 정자나무는 이 서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p>

1) 이 연대는 <연려실기술>의 [경산(慶山) 고산서원(孤山書院) 경오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정경세(鄭經世)]라는 기록 따른 것임. 『국역 대구부읍지』, <부록2>, 「경상도 경산현읍지」(478쪽)에는 ‘만력 계유년(1693)에 진사 한홍익 등이 서원 건립을 창의(唱議)하여 문순공 퇴계 이황의 위패를 봉안하고 또한 문장공 우복 정경세의 위패를 배향하였다.’라고 되어 있음. 이 기록을 따른다면 이 고산서당의 건립 연대는 숙종 19년(1693)으로 수정되어야 함. 그러나 백과사전 등 대부분의 기존 자료에 1690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안에는 일단 그대로 두고, 강당 재건시까지 관련 인들과 유림에 문의해서 최종 결정할 것을 건의함.

<개선점>

- 개요 없이, 건립 연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함.
- 전체가 두 문단인데, 제1 문단은 한 문장으로 됨.
- 셋째 문장: ‘서당은’을 주어로 제시했으나, 의미상 서술어와의 호응이 부자연스러움.
- 연대 제시 방식이 지침에 어긋남.
- 내용에 다소 소략함.

<수성구 누리집 설명 내용>

고산서당은 앞쪽으로 남천(南川)과 고산 들녘이 바라다 보이는 성동 서원골 야산자락에 있으며, 고산서당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퇴계(退溪) 이황(1501~1570)과 우복(愚伏) 정경세(1563~1633)선생이 이곳에서 강(講)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1500년대에 이미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뒤편에 퇴계와 우복 선생의 강학(講學)유허비(遺墟碑)와 아름드리 정자나 무가 있어 고산서당의 내력을 짐작할 수 있다.

1690년(숙종 16)에는 서당 뒤편에 사당을 건립하여 퇴계·우복 두분의 위패를 모시면서 고산서원으로 개칭되었으나, 사당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강당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 훼철되었다가 1879년(고종 16) 유림에서 옛터에 강당만 다시 지어 고산서당이라 하였다.

고산서당은 방형(方形) 토장(土牆)으로 둘러져 있고 건물구조는 납도리 위에 3량(樑)가구로 결조된 간결한 구조로 대량(大樑)은 만곡(灣曲)이 있는 목재와 막서까래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건물로 정면4칸, 측면2칸 규모로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있는 흘처마 팔작지붕이다.

강(講) : 조선시대 교육공간으로 선비 유생들이 학문을 익히던 곳으로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그 뜻과 이치를 묻고 대답하던 곳이다.

강당(講堂) : 유생들이 경학을 공부하던 서원건물의 하나

납도리 : 단면이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된 도리

■ 노변동 사직단

기존 안내문	
노 蘆 邊 洞	노변동 사직단 Nobyeon-dong Sajikdan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6호
	사직단 ^{社稷壇} 은 토지를 주관하는 신인 사 ^社 와 곡식을 주관하는 신인 직 ^稷 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종묘 ^{宗廟} 와 함께 국가적으로 중요시되어 국가의 다른 명칭으로 「종묘사직」이라고도 한다. 옛 문헌에서도 국가의 안위 安危를 표현할 때는 「사직이 위태롭다」라고 하며, 정부중신 政府重臣을 사직지신 ^{社稷之神} 이라고 표현하였다.
	노변동 사직단 ^{社稷壇} 은 조선시대 지방 사직단 중의 하나인 옛 경산현의 사직단으로 「경산현읍지 ^{慶山縣邑誌} 」 및 지방지도 등 문헌상으로만 확인되다가 시지택지개발지구 ^{1999.2.1.~2000.8.28} 의 남쪽 경계를 동-서로 지나는 유니버시아드로가 개설되면서 실시된 발굴조사 ^{1999.2.1.~2000.8.28} 결과 그 모습이 다시 드러나 조선시대 지방 사직단의 구조와 규모 등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 社 稷 壇	또한 사직단과 더불어 발굴된 삼국시대 대규모 고분군인 노변동 고분군에서 조사된 수백기의 유구와 만 여점의 유물은 삼국시대 고산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렇듯 노변동 사직단은 조선시대 사직단과 삼국시대 고분군이 시대를 달리하여 조성된 복합 유적인 만큼 과거 이 지역의 문화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서, 이러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노변동 사직단과 고분군을 복원·정비하게 되었다.
개선안	
	노변동 사직단(蘆邊洞 社稷壇) 대구광역시 기념물
	사직단은 토지를 주관하는 신(神)인 사(社)와 곡식을 주관하는 신인 직(稷)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지방 곳곳에 사직단을 두었는데, 노변동 사직단은 경산현 사직단을 발굴하여 복원한 것이다.
	이 사직단은 『경산현읍지』, 『영남지도』 등의 문헌과 지도에 기록으로만 전해져 오다가 1999년~2000년 시지 지구 택지 개발을 위해 실시된 발굴 조사에서 그 위치와 규모, 형태가 확인되었다. 현재의 모습은 당시에 드러난 하부구조 위에, 문헌 기록을 참고하여 상부 구조물을 복원한 것이다.
	이 사직단은 중앙의 제단을 ‘유(壇)’라고 부르는 낮은 담장이 사방으로 둘러싼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담장에는 네 방향의 중앙 부분에 출입하는 통로가 열려 있고 그 안쪽에는 홍살문이 하나씩 세워져 있다. 네 개의 홍살문 중에서 북쪽의 것은 사직신이 출입하는 북신문(北神門)이라 하여 다른 문에 비해 작게 되어 있다. 한양의 사직단에는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이 따로 있지만 지방의 사직단은 이곳처럼 제단이 하나라는 데 큰 차이가 있다.
	한양 사직단에서는 왕이나 영의정이 관장하는 사직제를 때에 맞추어 여러 차례 지냈지만, 지방에서는 지방 수령이 관장하는 사직제를 봄, 가을로 지냈다. 이곳 노변동 사직단은 2010년부터 수성구청과 수성문화원에서 매년 봄에 사직제를 지내고 있다.

2) 날짜 다음에 마침표가 빠짐.

<개선점>

- 첫 문단은 전체가 해당 문화재 자체가 아닌 사직단 일반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 번째 문단은 함께 발굴된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음.
- 2~3문단은 각각 한 문장으로 되어 있음. 서로 다른 차원의 내용이 한 문장 안에 길게 연결되어 있음.
- 마지막 문단에는 복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됨.

<수성구 누리집 설명 내용>

사직단은 토지를 주관하는 신인 사(社)와 곡식을 주관하는 신인 직(稷)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다. 우리 조상들은 조선시대부터 도성을 건설할 때 궁궐 왼쪽에 종묘(宗廟)를, 오른쪽엔 사직단을 두었다. 또한 사직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의 주요 지역에 사직단을 설치하여 제를 올렸다.

노변동 사직단 유적은 과거 경산현(慶傘縣)³⁾의 사직단이다. 발굴조사에 의해 밝혀진 노변동 사직단의 구조는 사직신을 모시는 제단시설, 제단을 보호하는 담장 등이 확인되었으며, 기초단의 아랫부분 규모는 장축 24m, 단축이 16m 정도이며 높이는 130 ~ 180cm 정도이다. 기초단 위에 유시설이⁴⁾라 불리는 담장을 쌓았으며 그 내부에 하나의 제단을 설치하였다. 도성의 사직단과 달리 지방의 사직단은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을 합쳐서 하나의 단을 두었기 때문에 제단(祭壇)은 하나이다. 출입문 중 북쪽의 문이 폭 103cm 정도로 좁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북쪽의 문이 북신문(北神門)이라 불리는 문헌기록과 같이 신을 위한 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노변동 사직단은 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한 후, 한차례의 보수와 개축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복원·정비된 사직단은 2차 조성분 원형대로 하부구조를 보존하였으며, 상부 구조물은 과거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사직단 형태로 복원한 것이다.

3) 한자가 잘못 쓰였음. 각종 블로그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음.

4) 한자 병기 하지 않아서 이해가 어려움.

■ 대구부 수성비

기존 안내문	
대 구 부 수 성 비	<p>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90 Daegu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5, San 90 Manchon-dong, Suseong-gu, Daegu</p> <p>이 비는 경상도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였던 김세호^{金世鎬}가 경상감영의 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한 뒤, 그 사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문의 내용은 1870년 고종7 봄에 수리를 시작하여 그해 11월에 마쳤는데, 원래보다 높 이와 크기를 키워서 동서남북의 성격 위에 새로이 누각을 세웠다는 것이다. 누각의 이름 은 동을 정해루^{定海樓}, 서를 주승루^{籌勝樓}, 남을 선은루^{宣恩樓}, 북을 망경루^{望京樓}라 하였다고 한다.</p> <p>이 비는 본디 남문 밖에 세워진 것이었으나, 1906년⁵⁾(광무 10) 대구부성이 헐리면서 한 곳에 자리잡지 못하다가 1932년 대구향교로 옮겼다. 그런 뒤 1980년 남문^{嶺南第一關}을 다시 세우면서 비석도 이 자리로 옮겼다. 비문은 관찰사 김세호가 지었고 글씨는 절충장군^{折衝將軍} 최석로^{崔錫魯}가 썼다.</p>
	개선안
수 성 비	<p>대구부 수성비(大邱府 修城碑)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p> <p>대구부 수성비는 조선 고종 7년(1870)에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였던 김세호(金世鎬)가 대구읍성을 보수한 뒤에 세운 비석이다. 비문의 내용은 김세호가 지었고 글씨는 절충장군 최석로(崔錫魯)가 썼다.</p> <p>대구읍성은 선조 23년(1590)에 토성(土城)으로 축조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허물어져서 영조 12년(1736)에 석성(石城)으로 재건되었고, 고종 7년(1870)에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려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따라 크게 보수되었다. 이때 원래의 성곽보다 높이와 크기를 키웠고, 동서남북에 각각 정해루(定海樓), 주승루(籌勝樓), 선은루(宣恩樓), 망경루(望京樓)라는 누각을 세웠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성을 불편하게 여기던 일본인들의 철거 요구가 드세어지자, 당시 대구군수였던 박종양이 1906년~1907년에 걸쳐 이 성을 완전히 철거하였다.</p> <p>이 수성비는 영영축성비와 함께 읍성의 남문인 영남제일관(嶺南第一關) 밖에 세워졌으나, 1907년 읍성이 헐리고 난 뒤에는 방치되다가 1932년에 대구향교로 옮겨졌고, 1980년에 영남제일관이 재건되면서 현재의 자리에 다시 세워졌다.</p>

5) 중구청 누리집(visit 중구), 1907년에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음. 임식경(2008:18-19)에 의하면 1905년말부터 철거가 시도되었고, 1906년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되기 시작하여, 완전히 철거된 것은 1907년으로 보임. 1906년에 철거 시작, 1907년에 철거 완료로 정리됨.

<개선점>

- 내용의 통일성이 떨어짐. 마지막 문장은 위치가 어색함.
- 연대 표기 방식 등 지침에 어긋나는 표기가 있음.
- 문단 들여 쓰기를 하지 않는 등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표기가 있음.

<수성구 누리집 설명 내용>

이 비는 경상도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였던 김세호(金世鎬)가 경상감영의 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한 뒤, 그 사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문의 내용은 1870년(고종 7) 봄에 수리를 시작하여 그 해 11월에 마쳤는데, 원래 보다 높이와 크기를 키워서 동서남북의 성벽(城壁) 위에 새로이 4개의 누각(樓閣)을 세웠다는 것이다.

누각의 이름은 동을 정해루(定海樓), 서를 주승루(籌勝樓), 남을 선은루(宣恩樓), 북을 망경루(望京樓)라 하였다고 한다.

당초 이 비는 대구읍성의 남문 밖에 세워진 것이었으나, 1906년(광무 10) 대구부성이 헐리면서 한곳에 자리잡지 못하다가 1932년 대구향교로 옮겼다.

그런 뒤 1980년 남문[嶺南第一關]을 다시 세우면서 비석도 이 자리로 옮겼다. 비문은 관찰사 김세호가 지었고, 글씨는 절충장군(折衝將軍) 최석로(崔錫魯)가 썼다.

■ 독무재

독 무 재 獨 茂 齋	기존 안내문
	<p>독무재 獨茂齋 Dongmujae</p> <p>이 건물은 고향 마을에 은거하며 후진을 길러낸 선비 하시찬^{1750~1828}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제자들과 유림에서 지은 재실이다.</p> <p>하시찬은 일찍이 당대의 석학이던 이경호와 송성담에게 학업을 닦은 후, 그가 태어난 곳인 효목동에 독무암서라는 재실을 지어 후진 양성에 전념했다. 독무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와 유림에서 독무암서가 있던 자리에 세운 것이다. 1968년⁶⁾ 도로건설로 당시의 건물이 헐리게 되자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이 때 독무재의 왼쪽에 사당인 경덕사와 장판각을 새로 지었다. 독무재는 중앙에 강당을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대칭으로 배치하였으며 기둥 위쪽에는 이익공^{二翼工}으로 장식하였다.</p> <p>이익공二翼工 : 기둥머리에 두공과 창방에 교차되는 상하 두 개의 쇠서로 짜여진 공포 공포栱包 : 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p>
	개선안
	<p>독무재(獨茂齋)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p> <p>독무재는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인 열암 하시찬(悅菴 夏時贊, 1750~1828)을 기리는 재실이다. 원래는 하시찬이 강학(講學)하던 장소였는데, 1842년에 제자들과 유림이 기둥과 들보를 바꾸고 초가를 기와로 고쳐서 그를 추모하는 장소로 삼았다. 그 후 1954년에 후손들이 다시 지었고, 1967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 지었다.</p> <p>하시찬은 고려 충숙왕 때 효자 정려를 받은 하광신(夏光臣)의 후손이다. 그는 이익조(李宜朝)와 송환기(宋煥箕)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으나 끝내 벼슬에는 나아가지 않고 독무암서(獨茂巖棲)라는 서재를 지어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 특히 예학에 밝아 『팔례절요(八禮節要)』라는 예서(禮書) 2권을 지었다.</p> <p>이 재실에는 독무재 외에 사당인 경덕사(景德祠)와 장서각(藏書閣)이 있다. 경덕사에서 매년 삼월에 유림이 모여 춘향(春享)을 지내며, 장서각에는 『팔례절요』와 『열암문집(悅菴文集)』의 목판들이 보관되었으나, 지금은 안동(安東)에 있는 유교문화박물관의 장판각에 보관되고 있다.</p>

6) 상량문의 기록으로 보아 1967년으로 수정되어야 함.

<개선점>

- 인물명 제시 방식이 어긋남. ‘경호’와 ‘성담’은 각각 이의조와 송환기의 호임.
- 문단 들여쓰기 하지 않음.
- 둘째 문단에는 인물 이야기와 건물의 역사, 구조 등이 섞여 있음.
-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소략함. 재실을 지어 기릴 정도의 이야기가 없음.

<수성구 누리집 설명 내용>

독무재는 벼슬도 마다하고 향리(鄕里)에 은거하며 후진 양성에 전념한 하시찬(1750~1828)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문인(門人)과 유림(儒林)들이 힘을 모아 건립한 건물이다. 하시찬(夏時贊)은 현재의 독무재가 있는 서쪽 50m 지점 독무암서(獨茂巖樓)란 조그마한 재실에서 기거(起居)했으며, 이 때가 그의 나이 39세되던(→ 39세 되던) 1789년이다. 그는 당대의 석학이던 이경호와 송성담(宋成潭) 밑에서 수학하였으며, 그의 명성을 듣고 지방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배우기를 청해 독무재에서는 언제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다.

독무재는 동구 효목동 경북주유소 부근 경부선 철로변에 있었으나 대구시 3차 우회도로 건설 공사로 말미암아 1968년 4월에 지금의 자리로 이건(移建)되었다. 이전 시 독무재 서쪽에 경덕사와 장판각을 새로 지었다. 경덕사(景德祠)에서는 매년 3월 상정일(上丁日)에 각지의 유림들이 모여 춘향(春享)을 지냈으며, 장판각에는 지금도 팔례절요 판각이 보관되어 있다.⁸⁾

독무재 경내는 사당(祠堂)인 경덕사(景德祠)와 강당(講堂)인 독무재가 병렬로 배치된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로 되어있으며, 강학(講學)기능을 가진 독무재는 정면6칸, 측면1칸 반 규모로 가운데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이 있는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대구시내 고건축 가운데 보기 드문 것으로, 대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선유학자의 한 분인 그의 정신과 학덕을 추모하는 기념적 건물로서 가치가 높다.

7)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와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를 가리킴. 이름과 호가 혼동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이름을 써 주는 것이 원칙임.

8) <수성구 서원(당) · 재실 기초조사>(44쪽)에 의하면 팔례절요의 판각은 안동 유교박물관의 장판각에서 보관하고 있다.

■ 법이산 봉수대

법法 이伊 산山 봉烽 수燧 대臺	기존 안내문
	<p>대구 법이산 봉수대는 봉수제도가 체계화되는 조선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시대 군사통신 유적이다. 봉수는 주연야화(晝煙夜火)의 방법으로 연기와 불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했던 통신 시설로 당대의 발달된 과학기술 수준을 잘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p> <p>법이산 봉수대의 경우 발굴조사를 통해 형태와 규모 뿐 아니라 방호벽⁹⁾이나 출입구 등 세부시설까지 확인된 점이 특히 주목된다. 방호벽의 외부 둘레가 106.5m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타 봉수에 비해 규모가 크고 유구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p>
	개선안
	<p>법이산 봉수대(法伊山 烽燧臺)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p> <p>봉수대는 불과 연기로 군사정보를 전달했던 통신시설을 말한다. 법이산 봉수대는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운용된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봉수 유적이다.</p> <p>법이산 봉수에 관한 기록은 ‘경상도지리지’(1425)와 ‘증보문헌비고’(1908) 등의 문헌에 나타나는데, 남쪽으로는 청도군 팔조령 봉수, 북쪽으로는 경산현 성산 봉수(지금의 수성구 성동)와 연결되는 봉수였다고 한다.</p> <p>2019년에 이 봉수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배 모양[舟形]의 방호벽과 출입 시설, 가뭄 때 기우제를 올리는 기우단(祈雨壇) 관련 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방호벽의 외부 둘레가 106.5m로 다른 지역 봉수대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고, 특히 기우단을 가진 봉수대가 발굴된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이 봉수대의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p>

9) 방화벽과 방호벽의 두 역할을 다함. 두 용어를 다 사용함.

<개선점>

- 법이산 봉수대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 어색한 표현: 주연야화(晝煙夜火)의 방법으로 연기와 불을 이용하여 -- 중복
- 어문규범에 어긋난 표기: 규모 뿐 아니라, 세부시설

<수성구 누리집 설명 자료>

대구 법이산 봉수대는 봉수제도가 체계화되는 조선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시대 군사통신 유적이다. 봉수는 주연야화(晝煙夜火)의 방법으로 연기와 불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했던 통신 시설로 당대의 발달된 과학기술 수준을 잘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법이산 봉수대의 경우 발굴조사를 통해 형태와 규모 뿐 아니라 방호벽이나 출입구 등 세부시설까지 확인된 점이 특히 주목된다. 방호벽의 외부 둘레가 106.5m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타 봉수에 비해 규모가 크고 유구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 사월동 지석묘군

사 월 동 지 석 묘 군	기존 안내문
	<p>사월동 지석묘군¹⁰⁾ 沙月洞支石墓群 Dolmens in Sawol-dong</p> <p>지석묘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은 대덕산에서 발원하여 옥수동을 거쳐, 사월동에서 남천과 합류하는 신매천이 만든 부채꼴 지형의 아래쪽에 있다. 이들 무덤은 현재 신매천의 북쪽에 4개가 분포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칠성바위라 부르고 있어 원래는 7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고인돌은 비록 무덤이지만 청동기시대부터 사월동에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p>
지 석 묘 군	개선안
	<p>사월동 지석묘군 1(沙月洞 支石墓群 1) 대구광역시 기념물</p> <p>사월동 지석묘군은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지석묘[고인돌]가 무리를 지어 남아 있는 유적이다. 이 지석묘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1992년 9월에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1996년 시지2차사월보성타운이 신축되면서 현재의 위치에 지금과 같은 상태로 조성되었다.</p> <p>우리나라의 지석묘는 외형상 크게 탁자식(卓子式)과 바둑판식, 개석식(蓋石式) 등으로 나뉜다. 탁자식은 땅 위에 네 개의 받침돌을 세워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형태이고 바둑판식은 땅속에 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형태이며, 개석식은 받침돌 없이 덮개돌을 지면에 바로 놓은 형태이다. 사월동 지석묘는 모두 바둑판식이다. 현재 4기의 덮개돌이 남아 있으나, 마을의 노인들이 이 지석묘군을 ‘칠성바위’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더 많은 지석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p> <p>사월동에 지석묘군이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청동기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했던 곳임을 말해 준다.</p>

10) 문화재 명칭 변경 건의: 비지정 문화재에 ‘사월동 지석묘-1’이 있어서, 이 둘을 구별하면서도 공통점을 살리려면 이 문화재는 ‘사월동 지석묘군 1’로 하고, 비지정은 ‘사월동 지석묘군 2’로 하는 것이 좋겠음.

<개선점>

- 대상 문화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없고 전체적인 내용도 소략한 편임.」
- 둘째 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이들 무덤은’이 갑자기 등장함.
- 둘째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음.
- 문단 첫 문장 들여쓰기 하지 않음.

<수정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지석묘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형태인데 흔히 ‘고인돌’이라고도 부른다. 지석묘의 존재로 보아 사월지역은 청동기 시대 이래로 경작과 거주 공간으로 선호되었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시지2차사월보성타운이 신축되면서 아파트 안 서편에 사월동 지석묘군으로 조성되었다. 이 지석묘는 현재 4기가 남아있으나 옛날부터 칠성바위라고 불리었던 것을 참고하면 7기였을 가능성도 있다.

지석묘는 비록 무덤이지만 청동기시대부터 사월동에 사람이 살며 큰 마을을 이루었음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상동 지석묘군

상 동 지 석 묘 군	기존 안내문
	상동 지석묘군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2호 上洞 支石墓群 Daegu Monument No. 12 Dolmens in Sang-dong
	지석묘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건축 문화유산이며 흔히 고인돌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신천이 대구분지로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한 대구의 대표적인 지석묘군 중 하나이다. 현재 바깥에 드러난 상석을 비롯하여 지하에 30여기의 분묘가 확인되었으며, 신천변에 존재했던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이곳은 대구분지의 남쪽 경계를 이루는 팔조령 주변의 산지로부터 발원하는 신천이 대구분지로 유입되는 구역으로 신천 주변의 대표적인 지석묘군이다. 현재 상석을 중심으로 지하에 30여기의 다양한 지하분묘가 확인되어 신천변에 분포하고 있는 청동기시대 고인돌 사회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개선안
	상동 지석묘군(上洞 支石墓群) 대구광역시 기념물
	상동 지석묘군은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지석묘[고인돌]들이 무리를 지어 남아 있는 유적이다. 과거 신천 주변에는 지석묘가 많이 있었으나 도시 개발로 대부분 사라졌다. 이곳은 현재의 상태 정도로나마 보존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청동기 유적 중 하나이다. 이 지석묘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대구박물관의 발굴 조사(1998~1999년)에 의해 그 구조와 상태가 밝혀졌다. 이때 지상에 남아 있는 덮개돌의 지하 구역에 38기의 석관·석곽이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함께 출토된 유물 중에는 청동기시대 유물과 함께 신석기 문화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빗살무늬토기의 파편도 있었다. 이 지석묘 유적과 유물들은 이 지역이 신석기, 청동기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했던 곳임을 말해 준다.

<개선점>

- 문장 성분 호응 관계 어긋: 이곳은~지석묘군이다.
- 첫 안내문의 둘째 문단은 이어진 문장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질적인 내용의 두 절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두 번째 안내문은 전체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음. 두 문장 모두 자연스럽게 못한 문장임.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 수성구청 누리집, 행복수성 문화관광, 문화재-향토 문화유산
 - 대구의 남쪽 경계인 팔조령에서 발원하는 신천(新川)은 대구분지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 금호강과 합류하면서 고대(古代)로 부터 대구의 젓줄 역할을 한다. 신천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석묘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신천을 따라 무리를 이루어 분포하던 지석묘들은 근대화과 도시개발로 대부분 사라졌으며, 수성못 서편 제방(堤防) 인접한 곳에 있는 4기의 상동 지석묘도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훼손의 위기에 처하자 지석묘의 성격과 그 변천과정을 밝히고자 1998.11 ~ 1999.2 까지 국립 대구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발굴결과 41기(석곽형 32기, 석관형 6기, 제의(祭儀)관련유구 3기)의 유구와 마제석검 2점, 마제석촉 51점, 즐문토기편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제한된 범위 안에 유구(遺構)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지하매장시설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였다.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석기 문화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빗살무늬토기 파편도 발견되었다.

■ 야수정

야 수 정 倮 叟 亭	기존 안내문
	<p>야수정 倮叟亭 대구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4호 Daegu Cultural Property Material No. 14</p> <p>이 집은 1900년경에 지은 진씨 문중의 재실(齋室)이다. 건립할 때는 정면 5칸 측면 1칸 반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뒤에 살림집으로 사용하면서 뒷부분 전체가 반 칸 증축되었다. 건물의 마루 밑에 붉은 벽돌을 쌓고 마루에 장마루를 깔고, 유리를 끼운 미서기문을 사용하였으며 천장은 일본식 천장에 가까운 우물반자로 꾸며져 있다. 이러한 방식은 20세기 초 건축양식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통건축양식이 변화되어 가는 시대상을 반영한 한일(韓日) 절충식 건물이다.</p>
	개선안
	<p>야수정(倮叟亭)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p> <p>야수정은 풍기 진씨(豐基 秦氏) 진희규(秦喜葵)*가 1900년경에 지은 가옥형 정자이다. 원래는 앞쪽에 뒷마루를 둔, 정면 5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건물이었으나, 살림집으로 사용하면서 뒷부분 전체를 반 칸씩 늘려서 지금은 겹집의 형태가 되어 있다.</p> <p>이 건물은 일본 건축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양식적 특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의미가 있다. 마루에는 긴 마룻널을 사용한 장마루를 깔았고, 마루의 밑에는 붉은 벽돌을 쌓았으며, 유리를 끼운 미서기 문을 달았다는 점이 일본 건축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 천장에 설치된 우물정(井)자 모양의 반자**도 일본식에 가깝다. 이러한 형식은 20세기 초기의 건축에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 중 하나이다.</p> <p>* 진희규 : 일제 강점기 대구 부호의 한 사람으로 수성못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 중 하나이다. ** 반자 : 지붕 밑이나 위층의 바닥 밑을 가리기 위하여 꾸민 내부공간의 상부 구조물을 가리킨다.</p>

<개선점>

- ‘재실’이라고 한 것은 이 문화재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것임.
- 전체 한 문단으로 되어 있고 문장 연결이 다소 산만함.
- 둘째 문장은 길이가 길고 각 절의 주체가 건물, 사람으로 혼동된다.
- ‘진씨문중’이 다소 모호함.
- ‘한일절충식’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임.

<수성구 누리집 설명 자료>

1900년경 진씨(秦氏)문중(門中)의 재실(齋室)로 건립된 한일(韓日) 절충식 건물이다. 건립 당시 야수정은 전퇴간(前退間)을 둔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의 건물이었으나, 뒷날 살림집으로 사용하면서 뒷부분 전체가 반칸 증축되어 곽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건물의 평면구성은 어간(御間)과 좌협간(左夾間)에 걸친 2칸 마루방을 중심으로 좌측에 1칸 규모의 온돌방을 두고 우측으로 1칸 온돌방과 마루방이 연결된 홑집형 평면구성이었으나 뒤편으로 반칸 크기의 온돌방을 증축하여 원래의 모습을 잃어 버렸다. 전면에 설치된 전퇴칸은 각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동선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지녔다. 정면과 마루 등 대부분의 창호는 일제시대에 사용된 창호의 형태인 유리를 끼운 미서기문이고, 천장은 일본식 천장에 가까운 우물반자로 꾸몄다. 이러한 방식은 1900년 건축양식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통과 신문화의 융합을 볼 수 있는 시대에 따른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의의 있는 건축적 사료이다.

- **재실(齋室):**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세운 집
- **장마루:** 긴 마루널을 깎아 마루
- **우물반자:** 반자틀은 정자로 짜고 그 칸에 넓은 널로 덮어 꾸민 천장
- **홑집:** 전후에 방을 돌리지 않고 방이 한줄로 연결 배열된 집
- **곽집:** 건물의 평면에서 전후에 여러 방이 맞붙어 배치된 집

■ 영영축성비

영 嶺 營 營 축 築 성 城 비 碑	기존 안내문
	<p>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90 Daegu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4, San 90 Manchon-dong, Suseong-gu, Daegu</p> <p>이 비(碑)는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였던 민응수(閔應洙)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진 대구읍성을 쌓은 뒤, 그 규모와 공사과정을 기록하여 1737년(영조 13)에 세운 것이다.</p> <p>비문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1736년 1월부터 시작하여 6개월 정도 걸렸으며, 동원된 인원은 78,534명에¹¹⁾ 이른다고 한다. 성의 둘레는 총 2,124보(步) 성 위에서 몸을 숨기고 적에게 활이나 총을 쏠 수 있게 한 담인 여첩(女堞)이 819첩, 성높이는 서남이 18척, 남북이 17척¹²⁾, 뒤 축대의 넓이가 7보, 높이가 3급(級)이라고 기록되어 있다.</p> <p>이 비는 원래 남문(嶺南第一關)밖에 세웠는데 1906년(광무 10) 당시 대구군수인 박중양(朴重陽)이 성을 헐어 버렸고, 이 비는 여러 곳으로 옮겨다니다 1980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 비문은 민응수가 짓고, 글씨는 백상휘(白常輝)가 썼다.</p>
	개선안
	<p>영영축성비(嶺營築城碑)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p> <p>이 비석은 조선 영조 12년(1736)에 이루어진 대구읍성의 재건 과정과 규모를 새긴 것으로, 1737년에 세워졌다. 비문은 당시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로 읍성 재건을 주도했던 민응수(閔應洙)가 지었고, 글씨는 백상휘(白常輝)가 썼다.</p> <p>대구읍성은 선조 23년(1590)에 토성(土城)으로 축조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허물어진 것을 영조 12년에 석성(石城)으로 재건하였다. 비문에 따르면, 이 재건 공사는 1736년 1월부터 시작하여 6개월 정도가 걸렸으며, 공사에 동원된 인원은 78,584명에 이른다. 규모는 둘레가 약 2.68km, 높이는 대략 3.5~3.8m였으며, 여첩(女堞), 즉 성 위에서 몸을 숨기고 적에게 활이나 총을 쏠 수 있게 한 구조물이 819개였다고 한다.</p> <p>이후 대구읍성은 대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 왔고, 고종 7년(1870)에는 크게 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성을 불편하게 여기던 일본인들의 요구가 드세어지자, 당시 대구군수였던 박중양이 1906년부터 1907년에 걸쳐 이 성을 완전히 철거하였다. 당시까지 대구읍성의 남문인 영남제일관(嶺南第一關) 앞에 세워져 있었던 이 비석은 다른 곳에 방치되다가 1932년 대구향교로 옮겨졌고, 1980년에 영남제일관이 재건되면서 현재의 자리에 세워졌다.</p>

11) 현 안내문, 수성구 누리집, 문화재청 누리집에는 17,534명으로 되어 있는 반면, 중구청 누리집(visit 중구) 및 서정남(1981:20-21)은 축성비를 인용하여 78,584명으로 되어 있음.

12) 이 수치는 비문의 내용과 대구부읍지 등의 기록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비문의 수치에 따라 소개하는 것이 좋겠음. 중구청 누리집(visit 중구), 성 높이가 서남쪽 18척, 동쪽 17척으로 되어 있음. 서정남(1981:20-21)에는 축성비에 서남 18척, 동북 17척으로 되어 있다고 함. 논리적으로 서남, 동북이 옳을 듯함.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당시 적용된 도량형을 周尺으로 보고, 한 척을 20.81센티로 계산, 18척은 약 3.8미터로 계산함. 이 계산법에 따르면, 17척은 3.6미터 정도.

(비교) <http://mmj.suseong.kr/>: 완공된 성의 둘레는 총 2,124보(2,650m), 성 위에서 몸을 낮추고 활이나 총을 쏠 수 있는 방어시설인 여첩(女堞)이 819개, 성의 높이는 서남쪽이 18척(5.5m)이며 남북이 17척(5.1m), 뒤축대의 넓이가 7보, 높이가 3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선점>

- 내용 및 형식 차원에서 문단 구분이 불명확함.
- 대구읍성의 규모가 비문에 제시된 단위(보, 척 등)로 설명됨으로써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려움. 정확한 환산이 어렵더라도 기존 연구 등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단위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문장의 구성과 연결이 비문법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함. 특히, 둘째 문단에는 비가 주어인 절과 성이 주제인 절이 섞여 있음.
- 비문 작성자가 두 군데서 제시됨. 통일성의 문제. ⇨ ‘비의 성격 → 비문 내용(재건된 대구읍성의 규모와 특징) → 관련 이야기’ 순으로 구성
- 연도 표기 방식이 <한눈>에 어긋남. 1737년(영조 13)

<수성구 누리집 설명 자료>

이 비(碑)는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였던 민응수(閔應洙)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진 대구읍성을 쌓은 뒤, 그 규모와 공사과정을 기록하여 1737년(영조 13)에 세운 것이다.

비문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1736년 1월부터 시작하여 6개월 정도 걸렸으며, 동원된 인원은 78,534명에 이른다고 한다. 성의 둘레는 총 2,124보(步) 성 위에서 몸을 숨기고 적에게 활이나 총을 쏠 수 있게 한 담인 여첩(女堞)이 819첩, 성높이는 서남이 18척, 남북이 17척¹³⁾, 뒤 축대의 넓이가 7보, 높이가 3급(級)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⁴⁾

이 비는 원래 남문(嶺南第一關)밖에 세웠는데 1906년(광무 10) 당시 대구군수인 박중양(朴重陽)이 성을 헐어 버렸고, 이 비는 여러 곳으로 옮겨다니다 1980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 비문은 민응수가 짓고, 글씨는 백상휘(白常輝)가 썼다.

13) 이 수치는 비문의 내용과 대구부읍지 등의 기록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비문의 수치에 따라 소개하는 것이 좋겠음. 중구청 누리집(visit 중구), 성 높이가 서남쪽 18척, 동쪽 17척으로 되어 있음. 서정남(1981:20-21)에는 축성비에 서남 18척, 동북 17척으로 되어 있다고 함. 논리적으로 서남, 동북이 옳을 듯함.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당시 적용된 도량형을 周尺으로 보고, 한 척을 20.81센티로 계산, 18척은 약 3.8미터로 계산함. 이 계산법에 따르면, 17척은 3.6미터 정도.

(비교) <http://mmj.suseong.kr/>: 완공된 성의 둘레는 총 2,124보(2,650m), 성 위에서 몸을 낮추고 활이나 총을 쏠 수 있는 방어시설인 여첩(女堞)이 819개, 성의 높이는 서남쪽이 18척(5.5m)이며 남북이 17척(5.1m), 뒤축대의 넓이가 7보, 높이가 3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 비문 전체 확인 필요함.

이공제비 및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

이李 공公 제堤 비碑 및 군郡 수守 이李 후侯 범範 선善 영永 세世 불不 망忘 비碑	기존 안내문
	<p>여기 있는 3기의 비석들은 조선시대 신천(新川)의 치수에 공이 컸던 두 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당시 백성들이 뜻을 모아 세운 송덕비(頌德碑)이다.</p> <p>예로부터 대구분지는, 용두산에서 건들바위를 돌아 반월당과 달성공원 앞을 지나 금호강으로 흘러드는 신천의 범람으로 큰 비가 올 때마다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이에 따라 1778년(정조 2년) 닷이 대구판관이던 이서(李瀾)공이 사재를 털어 지금의 신천을 따라 물길을 돌리는 대규모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홍수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를 막았다.</p> <p>이러한 이서공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은 이공제비를 세우고 중국 송나라 소식(蘇軾)이 항주자사로 있을 때 축조한 제방을 소공제라 명명한 것을 본따 신천제방을 이공제라 칭하였다.</p> <p>비각의 왼쪽에 있는 비는 1797년(정조 21년)에 세운 것이며 가운데 비는 왼쪽의 비가 초라하다고 하여 1808년(순조 8년)에¹⁵⁾ 다시 세운 것으로 모두 수성교 서편에서 옮겨왔다. 오른 편의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는 대구군수 이범선(李範善)공이 1898년(광무 2년)에 큰 홍수로 인해 이공제 하류 부분이 훼손되어 대구읍성이 위험하게 된 것을 단시일 내에 보수하여 대구를 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듬해 백성들이 세운 송덕비로 이공제비와 함께 문화재로 보호해 오고 있다.</p>
	개선안
	<p>이공제비(李公堤碑)와 이범선 영세불망비(李範善 永世不忘碑)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p> <p>이 비각 안에 있는 비석들은 신천(新川)의 치수에 공이 큰 두 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세운 송덕비(頌德碑)이다. 왼쪽과 가운데는 이공제비(李公堤碑)이고 오른쪽은 군수 이후범선 영세불망비(郡守 李侯範善 永世不忘碑)이다.</p> <p>이공제비는 조선 정조 때 신천의 제방을 쌓아 홍수의 피해를 막아 준 대구판관 이서(李瀾)의 치적을 기리는 비석이다. 당시까지 대구는 신천이 홍수 때마다 넘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정조 즉위년(1776)에 부임해 온 이서가 1778년에 자신의 재산을 털어 10여 리에 걸쳐 제방을 쌓아 물이 넘치지 않게 했다. 이에 백성들이 제방의 명칭을 ‘이공제[이공(李公)이 만든 제방]’라고 하고, 이를 기리는 비석을 세웠으나 그 뒤 없어져서, 1797년에 다시 세운 것이 왼쪽의 것이다. 가운데 비석은 순조 8년(1808)에 세워졌는데, 앞에 세운 비석이 초라하여 이공의 치적을 영구히 기리기 위해 다시 비석을 세운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p> <p>군수 이후범선 영세불망비는 대구 군수 이범선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이다. 광무 2년(1898)에 신천에 큰 홍수가 나서 이공제의 하류 부분이 유실되고 대구읍성이 위험하게 되자, 당시 군수였던 이범선이 그 보수공사를 짧은 시간에 완성하여 주민들의 근심을 덜어주었다. 이에 이듬해인 1899년에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고자 이 비석을 세웠다.</p>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등에는 1805년(순조 5)이라고 되어 있으나 비문 탁본 자료를 확인한 결과 1808년이 맞음.

<개선점>

- 신천의 물길을 돌렸다는 진술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설이 있음.
- 두 비에 대한 내용이 한 문단에 들어 있음.
- 이후범선영세불망비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으로 진술되어 있음.
- 더 의미 있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음. 첫 비가 정조 21년에 세워진 이유 등

<참고 자료>

- 수성구청 누리집, 행복수성 문화관광, 문화재-향토 문화유산

이공제비는 이서 선생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대구 주민들이 세운 송덕비(頌德碑)이다. 대구분지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금호강에 유입하는 신천은 홍수때만 되면 범람하여 피해가 극심하였다. 그러나 1776년(조선 정조 원년) 이서가 대구판관으로 부임하여 주민의 피해를 염려해 정조 2년(1778년) 주민 부담없이 사재를 털어 10여리에 걸쳐 제방을 축조하여 홍수의 피해를 막았다.¹⁶⁾ 이에 주민들은 이판관이 쌓은 제방을 중국 송나라의 명학이던 소식이 항주자사로 있을 때 축조한 제방을 “소공제”라고 명명한 것을 본떠서 “이후언(李侯堰) 또는 이공제(李公堤)”라 칭하였다. 1797년(정조 21)에 이공제비를 세우고 매년 1월 14일에 향사를 올렸다. 중앙의 비는 1986년 신천대로 공사 때 수성교 서편 지하에서 발견된 것으로 1808년(순조 8)에 세운 것으로, 1797년 세운 비가 초라해 이서 선생의 업적을 영구히 기리고자 다시 비를 세운다고 적혀 있다.

이공제비와 나란히 오른쪽에 서 있는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는 1899년에 세운 것으로 1898년(광무2)에 큰 홍수가 있어 이공제 하류 부분이 훼손되어 대구 읍성이 위험하게 되자, 군수 이범선(李範善)이 주민 부담없이 국고로 수천금의 비용을 들여 단시일에 공사를 완공하자 주민들은 그의 공적을 보답하고자 비석을 세웠다. 이 비석들은 지방수령으로 재직 당시 치수에 힘쓴 업적을 기려 백성들이 세웠다. 이 비석들은 중구 대봉동 655번지 신천대로변에 있었으나 주변 수목으로 인해 시계(視界)가 불량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주변 공간이 협소하여 2000.9.6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 * 이서 : 1732~1794.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계호(季浩). 1759년(영조35년) 문음(門蔭)으로 입사하여 1776년부터 2년6개월 동안 대구 판관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다. 가장 큰 업적은 신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제방을 축조하여 막은 치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 송덕비(頌德碑) : 관직에 있으면서 은혜와 교화를 끼쳤을때 백성들이 공덕을 칭송하여 만드는 비(碑). 일명 선정비(善政碑), 유애비(遺愛碑)라고도 한다.

16) 몇몇 자료에 물길을 돌렸고, 이렇게 해서 새로 생긴 물길을 ‘신천’이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으나, ‘신천(新川)’은 이전에 나온 ‘경상도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에 이미 등장하며, 정조 이전에 나온 ‘해동지도’와 ‘광여도’ 등의 물길도 지금과 같다.

■ 하효자정려각

하夏 효孝 자子 정旌 려閣 각閣	기존 안내문
	<p>이 정려각 안에 있는 비석은 대구 경북지방에서 가장 오래된¹⁷⁾ 효자비 중의 하나이다. 고려 때 이부시랑^{吏部侍郎}을 지낸 하광신^{夏光臣}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1327년^{충숙왕¹⁴} 조정에서 정문^{旌門}을 세운 것이다. 정려각은 처음에 달성하씨의 종산^{宗山}인 수도산 부근에 세워졌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졌다. 이 정려비는 1781년^{정조⁵} 만촌동 형제봉 기슭에 중건한 것을 일본 강점기 때 이 곳으로 다시 옮긴 것이다.</p>
	개선안
	<p>하효자 정려각(夏孝子 旌閣閣)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p> <p>이 정려각 안에는 고려 때 이부시랑(吏部侍郎)을 지낸 하광신(夏光臣)의 효성을 기리는 정려비가 있다.</p> <p>하광신은 효성이 지극하여, 한겨울에 병환 중인 노모께 복숭아를 구해 드렸고, 노모가 별세하자 그 무덤가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시묘*하였다. 이를 알게 된 고려 충숙왕(忠肅王)이 1327년에 ‘효자 고려 이부시랑 하광신지려(孝子 高麗 吏部侍郎 夏光臣之閣)’라는 정문(旌門)을 세우고 그 자손들의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정려가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정려가 대구 경북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p> <p>하효자의 정문은 처음에 달성 하씨(達城 夏氏)의 종산(宗山)인 수도산 부근에 세워졌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졌다. 조선 정조 5년(1781)에 지금의 정려비를 새기고 만촌동 형제봉 기슭에 정려각을 다시 세웠는데, 일제 강점기 때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 왔다.</p> <p>정려각 안에는 하광신이 받은 정려의 내력을 새긴 정려비와 이 정려각을 새로 지은 내력을 쓴 중건기문(重建記文)이 들어 있다. 정려비의 비문은 이조판서 황경원(黃景源)이 지었고, 글씨는 사헌부 지평 이약채(李若采)¹⁸⁾가 썼다. 중건기문은 하광신의 18세손인 열암 하시찬(悅菴 夏時贊)이 1784년에 쓴 것이다.</p> <p>* 시묘(侍墓): 부모나 남편의 상을 당해, 그 무덤 옆에서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사는 일</p>

17) 비의 건립 연대가 아닌 정려를 받은 시점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봐야 한다.

18)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검색에는 이약채로, 대구이야기 ‘효자하공정려비’에는 李若乘으로 되어 있음.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이약채(1727-1782, 인천인)’은 검색되나 ‘이약승’은 나타나지 않음. ‘대구이야기’의 ‘이약승’이 오류로 판단됨.

<개선점>

- 전체가 한 문단, 4문장으로 내용이 너무 소략함.
- 첫 문장에 들어 있는 정보는 부정함.

<수성구 누리집 설명 자료>

이 정려각 안에 있는 비석은 대구 경북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효자비 중의 하나로 고려 때 이 부시랑(吏部侍郎)을 지낸 하광신(夏光臣)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해 조정에서 정문(旌門)을 내려 세운 것이다. 하광신은 달성 하(夏)씨로 달성 하씨의 시조는 중국 송나라 대도독이었던 하흠(夏欽)인데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정착하였다. 이후 그의 아들 하용(夏溶)이 고려를 침공하는 오랑캐를 무찔러 큰 공을 세우자 조정에서 달성군(達城君)에 봉했는데 이때부터 하씨들이 대구 부근에 많이 살게 되었다. 하광신은 달성군에 봉군된 하용의 손자로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의 효성에 관한 얘기는 많은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광신의 어머니가 몇 해째 중병이 들어 누워 있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아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늦겨울에 병상의 노모는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말했다. 효성이 극진한 광신이었지만 기가 찼다. 엄동설한에 어디서 복숭아를 구해온단 말인가? 광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복숭아를 구할 방법이 없어 마을 뒷산에 올라가 자기의 효성이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다. 곁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호랑이는 덤벼들지 않고 자기 등에 올라타라는 시늉을 해 보냈다. 광신은 영문도 모른 채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호랑이는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하여 어느 산골 외딴집에 도착하였다. 광신이 이상하게 여겨 불빛이 새어 나오는 집의 문을 두드리니 막 제사를 마친 제사상 위에 복숭아가 눈에 띄었다. 얼른 방으로 들어가 사정을 이야기한 광신은 복숭아 한 개를 달라고 간청했다. 광신은 주인이 주는 복숭아를 받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한 후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 그 뒤 어머니가 간호의 보람도 없이 세상을 떠나자 무덤가에 여막을 짓고 3년간 지성껏 시묘(侍墓)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충성왕은¹⁹⁾ 1327년 그가 살던 마을에 '효자 고려 이부시랑 하광신지려'(孝子高麗吏部侍郎夏光臣之閭)라는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정려각은 처음에 달성 하씨의 종산(宗山)인 수도산 부근에 세워졌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졌다. 이 정려비는 1781년 만촌동 형제봉 기슭에 중건하였으나 일제 때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헐려 현 위치로 다시 옮긴 것이다.

19) 충숙왕의 잘못임.

비지정 향토 문화유산



*덕봉선생 장공 유허비각

■ 나야대령 기념비

나 야 대 령 기 념 비	기존 안내문
	나야대령 기념비 안내 ²⁰⁾ 불멸의 사랑! 인도와 한국을 잇다, 나야대령 ²¹⁾ 나야대령 한국전쟁에 순직하다 한국전쟁당시 국제연합한국위원단 인도대표로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던 1950년 8월 12일 경북 칠곡군 왜관 근처에서 지뢰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전쟁중이라 고국으로의 송환이 어려웠던 나야대령은 1950년 8월 13일 수성구 범어동 산 156번지 속칭 주일골에서 화장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1950년 12월 7일 당시 조재천 경상북도지사가 각계의 성금을 모아 나야대령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미망인 비말라나야 여사, 사랑하는 남편 곁에 영원히 함께하다. 당시 고국 인도에는 결혼한 지 3년된 미망인 비말라나야 여사와 2살된 딸 파바시 모한이 있었습니다. 나야대령이 순직하고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한 비말라나야 여사는 ‘남편 곁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2011년 세상을 떠났으며, 따님 파바시 모한 여사가 그 뜻을 수성구청에 전해 왔고, 2012년 8월 24일 영현안장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함께 한 나야대령 수성구청에서는 이국인으로서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숨진 故 나야대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2003년 9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나야대령기념비를 국가현충시설로 지정 받았습니다. 매년 현충일을 비롯해 수차례 기념비 주변을 깨끗하게 단장하여 학생, 주민 등 참배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선안
	나야대령 기념비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 이 비석은 한국전쟁 때 전사한 나야대령을 추모하기 위해 1950년에 세워졌는데, 2003년에 보훈처에 의해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나야대령은 1950년 한국전쟁에 국제연합한국위원단 인도대표로 참전했다가, 그해 8월 12일 경북 왜관에서 지뢰 폭발로 사망했다. 그의 주검을 인도로 송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정부는 8월 13일에 이 자리에 화장하였다. 그리고 그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조재천 경북도지사의 주도로 성금을 모아 같은 해 12월 7일에 이 기념비를 세웠다. 당시 인도에는 3년 전에 결혼한 부인 비말라나야 여사와 2살된 딸 파바시 모한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을 방문했던 부인은 남편 곁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2011년에 세상을 떠났고, 딸로부터 그 뜻을 전달받은 수성구청에서는 2012년 8월 24일에 부부의 안장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이 비석은 시민들이 나야대령을 추모하고 그 부인의 애절한 마음을 기억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인도와 한국 두 나라 국민들을 우의로 잇는 가교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20) ‘안내’는 불필요함.

21) 안내문의 제목에는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

<개선점>

-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표기가 여럿 있다.: 한국전쟁당시, 나야대령, 전쟁중, 3년된
- 문화재 안내문 지침과 달리 제목에는 다른 수식어를 붙이고 있음.
- 문장 성분의 생략, 호응 관계에 맞지 않는 문장이 여럿 있다.
- 일반적인 문화재 안내문 작성 지침과는 달리 ‘하십시오체’로 되어 있다.

<수성구 누리집 설명 자료 1: 관광명소>

나야대령 한국전쟁에 순직하다

한국전쟁당시 국제연합한국위원단 인도대표로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던 1950년 8월 12일 경북 칠곡군 왜관 근처에서 지뢰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전쟁중이라 고국으로의 송환이 어려웠던 나야대령은 1950년 8월 13일 수성구 범어동 산 156번지 속칭 주일골에서 화장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1950년 12월 7일 당시 조재천 경상북도지사가 각계의 성금을 모아 나야대령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미망인 비말라나야 여사, 사랑하는 남편 곁에 영원히 함께하다.

당시 고국 인도에는 결혼한 지 3년된 미망인 비말라나야 여사와 2살된 딸 파바시 모한이 있었습니다. 나야대령이 순직하고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한 비말라나야 여사는 ‘남편 곁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2011년 세상을 떠났으며, 따님 파바시 모한 여사가 그 뜻을 수성구청에 전해 왔고, 2012년 8월 24일 영현안장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함께 한 나야대령

수성구청에서는 이국인으로서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숨진 故 나야대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2003년 9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나야대령 기념비를 국가현충시설로 지정 받았습니다. 매년 현충일을 비롯해 수차례 기념비 주변을 깨끗하게 단장하여 학생, 주민 등 참배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2> 향토 문화 유산

수성구 범어동 야산 기슭에 세계평화를 위해 한국전투에서 숨져간 인도인 <나야대령> 의 넋을 기린 기념비석이 있다.

고 나아대령은 6.25때 국제연합한국위원단 인도대표로 낙동강전투가 치열했던 1950년 8월 12일 경북 칠곡군 왜관근처에서 지뢰폭발로 사망, 1950년 8월 13일 수성구 범어동 산 156번지(대구여고 동편 야산) 속칭 주일골에서 화장하고 같은 장소에서 1950년 12월 7일 당시 조재천 경북 지사가 기념비를 건립했다.

1996년 주변 단장과 보수공사를 통해 그분의 고귀한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 찾아오면 고 나아대령 전적기념비를 참배하고 자유수호를 위해 타국만리 이국땅에서 숨진 이국인의 영혼을 위로해 왔다.

1967년 10월 15일 고 나아대령 미망인 나이야르 여사가 한국 땅에 묻힌 남편의 넋을 찾아 한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1970. 5. 18일 주한 인도총영사, 1989. 5. 11 나이야르 여사가 주한 인도대사와 함께 다녀갔음.

수성구청에서는 이국인으로서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숨진 고 나아대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2003년 9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나아대령기념비를 국가현충시설로 지정 받아, 매년 현충일을 비롯해 수차례 기념비 주변을 깨끗하게 단장하여 학생, 주민 등 참배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국조단군성전

國國 祖祖 檀檀 君君 聖聖 殿殿	기존 안내문
	<p>기존 안내문 없음.</p>
	개선안
	<p>국조단군성전(國祖檀君聖殿)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국조단군성전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상과 영정을 모셔 놓은 공간이다. 1945년에 달성공원 안에 있던 일본 신사를 없애고 그 자리에 국조전을 설치하고 단군의 영정을 모셨다. 그 후 1963년 공원 복원 공사로 국조전이 철거되어, 1966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새로 지었다. 1981년에 단군 숭봉 단체인 현정회(顯正會)의 표준 영정에 의거하여 제작한 단군 청동좌상을 성전 안에 봉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p>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수성구 두산동 산13-7번지

두산동에 위치한 국조 단군성전은 1945년 대구 달성공원 내에 있던 일본신사를 철거한 후 국조전으로 명명하고 국조단군영정을 모시다가 1963년 달성공원 복원공사 시 국조전 건물을 철거하고 1966년에 대구시에서 현 위치인 두산동 산13-7번지에 신축이전 하였다.

1981년에 단군 숭봉 단체인 현정회(顯正會)의 표준영정에 의거해 단군 청동좌상을 안치하였고 1991년부터 수성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 덕봉선생 장공 유허비각(신규 추가 자료)

덕 봉 선 생 장 공 유 허 비 각	기존 안내문
	기존 안내문 없음.
	개선안
	<p>아산 장씨 덕양단(牙山 蔣氏 德陽壇)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아산 장씨 덕양단은 덕봉공파 문중에서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2005년에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덕봉선생 장공 유허비(德峰先生 蔣公 遺墟碑)와 비각, 그리고 4기의 제단이 조성되어 있다.</p> <p>덕봉선생 장공 유허비는 덕봉 장자원(德峰 蔣自元)을 기리기 위해 1927년에 후손들이 세웠는데, 비문은 김헌주(金獻周)가 지었다. 비각의 앞에는 덕양단 조성 내력을 기록한 ‘덕양단기(德陽壇記)’가 걸려 있는데, 이 역시 김헌주가 지었다.</p> <p>4기의 제단은 각각 장자원과 그의 부친인 장간(蔣苧), 아들인 장시영(蔣始榮), 손자인 장광정(蔣光廷)을 위한 것으로 현재의 덕양단을 조성하면서 만든 것이다.</p>

■ 덕산서원

덕 德 산 山 서 書 원 院	기존 안내문
	<p> 덕산서원 德山書院 Deoksan Seowon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46길 5-3 </p> <p> 이 서원은 조선 초기 문신인 남은(南隱) 서섭(徐涉)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는데, 그의 아들 생원 서감원(徐坎元)을 배향하였다. 서섭은 세종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는 세종, 문종, 단종 3왕을 보필하였는데,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관직에서 물러나 자취를 숨긴 충신으로 그의 행적을 오랫동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1920년에 단종에게 올린 상소문과 유문이 발견됨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26년에 첨모재(瞻慕齋)를 건립하였는데, 1954년에 중수(重修)하였으며, 1995년에 사당(祠堂)을 짓고 확장하여 서원으로 편액(扁額)하였다. 저서로 서섭의 <남은선생문집>과 서감원의 <성균생원서공실기(成均生員徐公實記)>가 있다. </p>
	개선안
	<p> 덕산서원(德山書院)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 </p> <p> 덕산서원은 조선 초기의 문신인 남은 서섭(南隱 徐涉)과 그의 아들인 서감원(徐坎元)을 배향하는 서원이다. </p> <p> 서섭은 달성 서씨(達城 徐氏) 판서공파 파조(派祖)로 세종 때 대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갔고 단종 때는 이조판서를 지냈다. 그는 단종에게 간신을 배척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에는 낙향하여 남애(南涯)라는 호를 남은으로 바꾸고 은둔하였다. 1924년에 발견된 유고와 행장을 통해 그의 충절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서감원은 서섭의 둘째 아들로, 성종 15년(1484)에 생원의 신분으로 조정의 실정과 임금의 허물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목숨을 잃었다. </p> <p> 1926년에 후손들과 유림이 이들 부자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서섭의 묘소 인근에 첨모재(瞻慕齋)를 세웠고, 1954년에 중수하면서 신도비를 세웠다. 1993년에는 이 재실을 서원으로 바꾸었고, 1995년부터 이들 부자의 위패를 봉안하여 제향하고 있다. </p> <p> 이 서원의 건물로는 강당인 충정당(忠正堂)과 동재인 구인재(求仁齋), 서재인 존성재(存誠齋), 사당인 경의사(景義祠)가 있다. 강당의 동편에 남은 서선생 신도비(南隱 徐先生 神道碑)와 비각(碑閣)이 있고 남쪽에는 덕산서원 사적비가 있다. </p>

<개선점>

- 서원에 대한 내용과 인물에 대한 내용이 구분없이 섞임.
- 각 문장이 통일된 명제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음.
- 서섭과 서감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소략함. 특히 서감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음.
- 첨모재는 대구직할시 지정 문화재였으나 서원으로 확장하면서 탈락한 것으로 보임. 이 내용은 안내문에는 넣지 않으나 어딘가에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음.

<수정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이 서원은 조선조 초기 문신으로 대쪽 같은 절개를 지켰던 남은(南隱) 서섭(徐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첨모재(瞻慕齋)를 1993년 서원으로 복설(復設)한 것이다.

서섭은 달성서씨 판서공파 파조(派祖)로 세종 때 대과에 급제한 후 단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인물인데 세조의 왕위 찬탈로 관직을 사직하고 낙향하여 남애(南涯)라는 호를 남은(南隱)으로 고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은둔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도 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잘 모르다가 80여년전 그가 살았던 낡은 집을 헐다가 천장 속에서 발견된 함에서 그의 행장과 유고를 발견하여 그의 충절이 널리 알려졌다. 이에 1926년 후손들이 묘소가 있는 황금동 근처에 첨모재를 세우고 1954년 중수 할 때 신도비를 세웠다.

서원의 정당은 4칸으로 강당은 충정당(忠正堂)이다. 동재는 3칸으로 구인재(求仁齋)이고 서재 또한 3칸으로 존성재(存誠齋)이다. 사당은 경의사(景義祠)로 강당의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강당의 서쪽 벽 위에 이수락(李壽洛)의 덕산서원기(德山書院記)가 편액되어 있고 기둥에는 주련이 걸려 있다. 대문인 외삼문은 숭절문(崇節門)이고 내삼문은 유현문(維賢門)이다. 정당의 동편에 남은 서선생신도비(南隱 徐先生神道碑)와 비각(碑閣)이 있고 강당의 남쪽에 덕산서원 사적비가 있다.

■ 덕산재

덕德 산山 재齋	기존 안내문
	<p>이 건물은 牙山人(아산인) 德峰(덕봉) 蔣自元(장자원)을 위한 萬墓所(만묘소)²²⁾이다. 蔣自元(장자원)은 監察(감찰) 苻(우)²³⁾의 子(자)로서 조선 成宗朝(성종조)에 司馬(사마)에 올라 萬城參軍(만성참군)에 이르렀다. 德山齋(덕산재)는 1740년(英祖, 영조 16²⁴⁾)에 海鵬公(해봉공)이 宗族(종족)의 書堂(서당)으로 지어 曲溪精舍(곡계정사)라 하였다가 履露齋(이로재)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후 1917년(高宗, 고종 7)²⁵⁾ 호복공(灑復公)이 內串洞(내관동) 속칭 서당골로 移建(이건)하면서부터 德山齋(덕산재)라 改稱(개칭)하였으며 1917년에 현재의 위치로 다시 移建(이건)²⁶⁾한 후 1978년에 重修(중수)하였다.</p>
	개선안
	<p>덕산재(德山齋)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덕산재는 아산 장씨(牙山 蔣氏)의 문중 재실로 덕봉 장자원(德峰 蔣自元)을 비롯한 선조의 덕을 기리고 제단을 관리하는 곳이다.</p> <p>장자원은 조선 성종조의 문신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였고 효행과 덕행이 높았다. 김종직과 도의(道義)로 사귀고, 벼슬이 한성부 참군(漢城府 參軍)에 이르렀으나 연산군 4년(1498)에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관직을 그만두고 대덕산 아래에 은거하였다.</p> <p>이 재실은 원래 영조 16년(1740)에 곡계정사(曲溪精舍)라는 이름의 문중 서당으로 지어졌다. 이후 몇 차례 위치가 옮겨지고 이름도 이로재(履露齋, 1824년)를 거쳐 덕산재(1870년)로 바뀌었다.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은 1917년이며 건물은 1978년에 중수(重修)한 것이다.</p> <p>덕산재는 정면이 3칸(방 2, 대청 1), 측면이 2칸이며, 방과 대청의 앞에는 반 칸 규모의 뒷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장식이 절제된 근대 재실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p>

22) 萬墓所(만묘소): ‘우묘소(寓墓所)’의 잘못임. 수성구 누리집 관련 자료에는 바로 되어 있음.

23) 苻(우): 수성구 누리집에는 감찰 ‘간(竿)’으로 되어 있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장간(蔣竿)”으로 되어 있음. 덕양단 제단에 ‘苻’(벗질 간)으로 되어 있음.

24) 수성구 문화유산 총람과 수성구 누리집에는 영조 17년으로 되어 있으나, 16년이 맞음.

25) 고종 7년은 1870년임.

26) 두 이 건 연도가 1917년임. 『수성구 문화유산 총람 및 문화유적 분포지도』(80쪽)에는 ‘1740년 건립, 1917년 이전, 1978년 중건’으로 되어 있음.

<개선점>

- 용어나 정보의 잘못이 있음. 만묘소, 1917년(고종7년)
- 전체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재실의 내력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 재실의 이름을 바꾼 조상의 호가 나열되어 있음.
- 한자(한글)로 표기되어 있음.
- 연대 표기가 규범에 맞지 않음.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덕산재는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아산인 덕봉 장자원을 위한 우모소(寓慕所)¹⁾이다. 장자원은 감찰 간(竿)의 자(子)로서, 조선 성종조에 사마²⁾에 올라 한성참군에 이르렀다. 일찍이 덕행과 효행으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김종직, 도의와 교류가 있었다.

재실 중수기에 의하면 덕산재는 영조 17년(1740년)에 해봉공이 종족의 서당으로 곡계정사라 편액하였다가 그후 대흥동 속칭 '서당골'로 이건하여 부모 없이는 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심을 가지고 학문에 정진하여 가문의 전통을 세우라는 뜻에서 이로재(履露齋)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덕산재라 편액한 것은 고종 7년(1870년) 경북공이 대흥으로 이건하고나서부터라고 한다. 1917년 현 위치로 다시 이건하였으며, 1978년 한 차례의 중수가 있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 지붕이다.

1. 우모소(寓慕所) :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 옆에 임시로 집을 짓고 사모하는 정(마음)을 나타내는 곳
2. 사마(司馬) : 조선 때 병조판서를 이르는 말 사마시(司馬試)의 준말

■ 명정각

명命 정旌 각閣	기존 안내문
	<p>조선 순조 23년(1823)에 태어나 고종 30년(1893)에 세상을 떠난 두한필(杜漢弼, 두사충의 7대손)의 효행을 알리기 위하여 조정에서 정려(旌閭)를 내린 것이다.</p>
	개선안
	<p>명정각(命旌閣)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명정각은 두사충의 7대손인 두한필(杜漢弼, 1823~1893)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효자각이다.</p> <p>두한필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한겨울에 병환 중인 어머니에게 송이버섯을 구해 드려서 병을 낫게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효행이 널리 알려져, 조정에서 정려*와 함께 종3품 통훈대부 규장각직각(通訓大夫 奎章閣直閣)이라는 벼슬을 내렸다.</p> <p>명정각 안에는 두한필에게 정려가 내려진 내력을 기록한 정려기(旌閭記)와 정려비가 있고, 그의 효행을 찬양한 시와 산문, 그리고 명정각의 상량문이 걸려 있다. 현재의 건물은 1913년에 모명재와 함께 건립되었고 1966년에 보수한 것이다.</p> <p>* 정려(旌閭) : 조정에서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던 일을 말한다.</p>

<개선점>

- ‘정려각’이라는 건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조정에서 정려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리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음.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사충의 재실이 있는 서쪽 100m 지점에 붉은 벽돌담에 둘러싸인 아담한 효자각이 명정각이다. 이 효자각은 두사충의 7대손인 두한필(杜漢弼)의 효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정에서 정려(旌閭)을 내린 것이다.

두한필의 호는 소남(小楠)으로 1823년(순조23년)에 태어난²⁷⁾ 1893년(고종3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였다. 나중에 조정에까지 소문이 퍼져 그의 사후에 정려(旌閭)가 내려오고 종3품 관직인 통훈대부 규장각직각(通訓大夫 奎章閣直閣)을 증직하였다.

현재의 명정각은 1912년²⁸⁾ 두사충의 재실인 모명재를 지을 때 함께 건립한 것이다. 이후 1966년 후손들이 모명재와 함께 보수 하였다.

27) ‘태어나’의 잘못된.

28) 모명재와 명정각의 건립 연대는 1913년임. 기문 자료.

■ 모명재

모 慕 명 明 재 齋	기존 안내문
	<p>현재의 모명재는 1912년 경산 객사가 헐리자 그 재목을 사와 두사충의 묘소앞에 지은 것인데 1966년 2월 건물이 너무 낡아 중수하였다. 모명재는 네모 반듯한 대지에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대문을 통해 들어가면 앞쪽에 모명재가 위치하는데,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 기와집이다.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있고,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툇마루를 두었다. 모명재라고 한 것은 고국인 명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이고 대문에 달려 있는 만동문 역시 ‘백천유수필지동’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 이것 또한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순신 장군이 지어 보냈다는 한시가 새겨져 있는 대청 기둥, 충무공의 7대손인 삼도수군통제사 이인수가 비문을 지은 신도비와 명나라에서 가져온 청석으로 다듬은 2점의 문인상이 있다. 뒷산 형제봉 기슭으로 두사충의 묘소가 있다.</p>
	개선안
	<p>모명재(慕明齋)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모명재(慕明齋)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거둬 원병으로 조선에 왔다가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杜思忠)을 기리고 그 묘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1913년에 지은 재실이다. 경산 객사가 헐렸을 때 그의 후손들이 그 목재를 가져와 재실을 지었다고 하는데, 현재의 건물은 1966년 2월에 중수한 것이다.</p> <p>‘모명재’는 고국인 명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 대문 현판의 ‘만동문’(萬東門)은 ‘만절필동(萬折必東, 황하는 일만 번을 꺾여 굽이쳐 흐르더라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이라는 공자의 말에서 따온 것으로, 근본을 잊지 않고 절개를 지키겠다는 두사충의 마음을 담고 있다.</p> <p>두사충은 해전에 참여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만났는데, 두 사람은 곧 서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그에게 감동하여 ‘봉정두복야’(奉呈杜僕射, 두복야(두사충)에게 바칩)라는 한시를 지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건물 기둥에 주련(柱聯)으로 새겨져 있는 글귀가 바로 이 한시이다.</p> <p>모명재는 정면 4칸, 측면 2칸 반의 일자형(一字形) 구조로 되어 있는 기와집이다. 대청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각각 온돌방이 하나씩 있고, 앞쪽에는 반 칸 넓이의 툇마루가 있다.</p>

<개선점>

- 건립 연대는 1913년으로 수정되어야 함.
- 내용 연결성과 통일성이 부족함. 개요가 없이 시작. 전체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음.
- 여러 차원의 내용이 순서 없이 섞여 있어서,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개요-공간 물리적(/건축학적) 특징-역사 문화적 의미와 가치’ 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전체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음.
- 건립 연도가 잘못됨.
- ‘만동문(萬東門)’과 ‘백천유수필지동(百川流水必之東, 모든 하천은 동으로 흐른다.)’이 내용 상으로는 연관성이 있으나 글자로 보면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있고,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툇마루를 두었다. (→ 툇마루가 있다.)
- 이순신 장군이 지어 보냈다는 ~ 청석으로 다듬은 2점의 문인상이 있다.(→ 이 재실 안에는 ~ 등의 부속 유물이 있다.)
- 뒷산 형제봉 기슭으로(→기슭에)
- 네모 반듯한(→네모반듯한), 반칸(→반 칸), 묘소앞에(→묘소 앞에)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5길 14-21 (만촌동)

모명재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원병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 두사충(杜師忠)이 귀화한 후 그의 후손들이 1912년에 세운것이다.²⁹⁾

두사충의 호(號)는 모명(募明)으로 중국의 두릉(杜陵)이 고향이다. 1592년 임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명나라 제독(提督)이던 이여송(李如松)등과 함께 원병을 와서, 주위의 지형을 살펴서 진지에 적합한 장소를 만들도록 터를 잡아주는 임무인 수륙지획(水陸地劃) 주사(主事)를 맡았다.

따라서 그는 이여송의 일급 참모로서 항상 군진(軍陳)¹⁾을 펴는데 조언을 했고, 조선과의 합동작전을 할 때는 조선군과도 전략, 전술상의 긴밀한 협의를 가져왔다.(⇒ 두 나라 군대가 전략, 전술상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정유재란 때 두 아들과 함께 원병을 와서 공을 세웠는데 난이 평정되고 난 후, 조선에 귀화하였다. 조선에 귀화한 두사충은 대구에 정착하면서 현재의 중앙공원 일대를 하사 받았는데 경상도 감영을 대구에 옮기자 그 땅을 내어놓고 현재의 계산동(桂山洞) 일대로 두씨들의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 중국에 두고 온 부인과 형제들이 생각나 최정산(最頂山[현 대덕산])밑으로 거주지를 옮겨 명나라를 생각한다는 뜻으로 동네 이름을 대명동(大明洞)이라 붙이고 단(壇)을 쌓아 매월 초하루가 되면 관복을 입고 고국의 천자(天子)를 향해 배례(排禮)를 올렸다고 한다. 그의 사후 자손들은 두사충의 유언에 따라 형제봉(兄弟峰)기슭에다 묘소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모명재는 1912년 경산 객사가 헐리자 그 재목을 사와 두사충의 묘소 앞에 지은 것인데 1966년 2월 건물이 너무 낡아 중수하였다. 모명재라고 한 것은 고국인 명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이고 대문에 달려 있는 만동문 역시 백천유수필지동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 이 것 또한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두사충의 묘소앞에 있는 비문을 별도로 다시 새겨 모명재 앞뜰에 신도비를 세웠다. 이 비문은 이순신 장군의 7대손인 삼남 수군통제 이인수가 지었는데, 임란 당시 이순신과 두사충의 친밀한 관계가 후손들에게 까지 접촉을 갖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모명재는 네모 반듯한 대지에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대문을 통해 들어가면 앞쪽에 모명재가 위치하는데,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 기와집이다.

평면은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였으며,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툇간을 두었다. 건물 정면의 여모중방(대청앞 마루바닥에 가로지른 안방)밑은 붉은 벽돌을 쌓아막았다. 가구(架構)는 5량가의 견실한 구조로 종보 위에는 원형 판대공을 세웠으며 앞쪽의 창방(목조건물의 기둥 위에 가로 건너질러 연결하고 평방 또는 화반, 소로 등을 받는 가로재)과 장혀(도리를 받치는 긴 나무)을 끼워 장식하였다. 20세기 초 대구지역 재실 건축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

29) 띄어쓰기 잘못.

■ 무동재

무武 동洞 재齋	기존 안내문
	<p>소재지: 파동로2안길 6-25</p> <p>무동재(武洞齋)는 계동(溪東) 전경창(全慶昌 1532~1585) 선생이³⁰⁾ 강학한 계동정사(溪東精舍)의 옛터에 지은 재실로 1978년에 중건하였다. 옥산전씨 대구 입향조는 조선 태종 때에 경상도 관찰사와 예조판서를 역임한 파계(巴溪) 전백영(全伯英 1497~1536)으로 시호는 문평(文平)이다. 전경창은 문평공의 5대손이며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선생의 문인(門人)으로 대구지역에 퇴계학(退溪學)을 처음으로 전파한 대구 유학(儒學)의 개조(開祖)이다.</p> <p>그는 24세(명종 10, 1555)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42세(선조 6, 1573)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5품에 이르렀으나 54세의 나이로 한양에서 타계하였다.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教 4품)에 추증되었으며, 문인으로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 태암(苔巖), 이주(李耆) 등이 있다. 대구 최초의 서원인 연경서원(研經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 <계동문집(溪東文集)> 이 있다.</p>
	개선안
	<p>무동재(武洞齋)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무동재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계동 전경창((溪東 全慶昌, 1532~1585)을 비롯한 옥산전씨(玉山 全氏) 문중의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 1900년에 후손들이 세운 재실이다. 이 재실의 터는 전경창이 강학했던 계동정사(溪東精舍)가 있던 곳이고, 지금의 건물은 1978년에 중건한 것이다.</p> <p>전경창은 이황(李滉)의 학통을 이어받아 후학을 양성하고 대구 최초의 서원인 연경서원(研經書院)을 창건하는 등 이 지역 유학의 문을 연 인물이다. 그는 24세(명종 10년, 1555)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42세(선조 6년, 1573)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에 이르렀다. 죽은 뒤에는 홍문관 응교(弘文館 應教)에 추증되었다.</p> <p>이 재실은 정면 6칸, 측면 2칸의 일자형(一字形)으로 되어 있다. 왼쪽의 2칸은 방이고 가운데 2칸은 대청이며 오른쪽 두 칸은 방과 마루방이다. 마루방은 바닥을 한 단 높게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p>

30) 문화재청의 지침에는 ‘선생’ 등의 존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선점>

- 옥산전씨 입향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내용을 좀 더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 지침에 어긋난 기술: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무동재(武洞齋)는 계동(溪東) 전경창 (全慶昌 1532~1585) 선생이 강학한 계동정사(溪東精舍)의 옛터에 지은 재실로 1978년에 중건하였다. 옥산전씨 대구 입향조는 조선 태종 때에 경상도 관찰사와 예조판서를 역임한 파계(巴溪) 전백영(全伯英 1497~1536)으로 시호는 문평(文平)이다. 전경창은 문평공의 5대손이며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선생의 문인(門人)으로 대구지역에 퇴계학(退溪學)을 처음으로 전파한 대구 유학(儒學)의 개조(開祖)이다.

그는 24세 (명종 10, 1555) 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42세(선조 6, 1573)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5품에 이르렀으나 54세의 나이로 한양에서 타계하였다. 흥문관(弘文館) 응교(應教 4품)에 추증되었으며, 문인으로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 태암(苔巖), 이주(李輶) 등이 있다. 대구 최초의 서원인 연경서원(研經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 <계동문집(溪東文集)> 이 있다.

- 수성구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suseongblog/222785438188>) : 1976년 중건으로 소개함. 안내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아, 1978년 1976년으로 잘못 보았을 것임.

■ 미즈사키 린타로의 묘

미 즈 사 키 린 타 로 의 묘	기존 안내문
	<p>수성못을 축조한 수 기 임 태 량 故 水崎林太郎 墓</p> <p>이 곳은 수성못을 축조하고 관리하던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水崎林太郎)의 묘소입니다. 일본 기후현(岐阜縣) 출신인 그는 1915년 개척농민으로 대구에 와 수성들에서 화훼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천의 물이 상수도로 이용되면서 수성들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지자, 조선인 4명과 함께 수성못 축조를 위한 소리조합 설립에 나섭니다. 이후 경북도와 조선총독부를 설득해 사업비를 지원받고, 1924년 5월 26일 수성수리조합을 설립했습니다.</p> <p>수성못은 조합 설립 후인 1924년 9월 27일착공에 들어가, 마침내 1927년 4월 24일 완공되었습니다. 1939년 12월까지 못을 관리하다가 임종을 맞아 “자신이³¹⁾ 죽으면 장례는 전통 조선식으로 하고, 수성못이 보이는 곳에 묻어 달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이곳에 안장하게 되었습니다.</p>
	개선안
	<p>미즈사키 린타로(水崎林太郎)의 묘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이곳은 일제 강점기에 수성못 축조에 참여했던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水崎林太郎)의 무덤이다.</p> <p>미즈사키 린타로는 일본 기후현(岐阜縣) 출신으로, 1915년 개척농민*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에 와 수성들에서 화훼 농장을 경영했다. 1923년에 신천의 물을 대구시민의 식수로 이용하려는 계획이 수립되면서 수성들의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위기에 처하자, 그는 조선인 4명과 함께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경상북도와 조선총독부를 설득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1924년 5월 26일 수성수리조합을 설립하였고, 그해 9월 27일부터 1927년 4월 24일까지 수성못 축조 공사를 완료하였다.</p> <p>수성못이 완공된 이후에도 이 못을 관리하는 데 힘을 쏟은 그는 1939년 12월에 죽었다. 그의 무덤이 이곳에 만들어진 것은 자신이 죽으면 수성못이 보이는 곳에 묻어 달라는 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p> <p>*개척농민: 일제가 조선을 내선일체화하기 위해 조선으로의 이주를 권한 일본인 농민을 가리킨다.</p>

31) 직접 인용문의 주어로 ‘내가’가 되어야 한다.

<개선점>

- 미즈사키 린타로의 역할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
- 수성못 축조 공사 과정 전체를 단독으로 주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다소 주관적이고 미화적인 표현이 등장함. 명칭, 하십시오체.
- 전반적으로 더 담담하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봉산서원

봉 鳳 산 山 서 書 원 院	기존 안내문
	<p>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12길 70</p> <p>이 서원은 문탄(聞灘) 손린(孫麟 : 1566~1628) 선생³²⁾을 기리기 위하여 1766년(영조 42)³³⁾에 건립하였다. 1871년(고종 8)³⁴⁾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는데 1966년³⁵⁾ 복원하였다. 선생은 한강(寒岡) 정구(鄭逵) 선생의 문인으로 1606년(선조 39)에 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 박사, 안동.상주.경주교수, 예조.병조좌랑, 단성현감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문탄문집》이 있다. 서원의 강당은 지행당(砥行堂)이고 동쪽에는 사당(祠堂)인 봉암사(鳳巖祠), 서쪽에는 송독재(誦讀齋)가 있다. 경내에 <문탄 손선생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지행(砥行)은 <이름과 행실을 같고 닦는다(砥礪名行)>는 의미로 선생의 좌우명이자 자손들에게 준 가훈이다.</p>
	개선안
	<p>봉산서원(鳳山書院)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봉산서원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인 문탄 손린(聞灘 孫麟, 1566~1628)을 기리기 위하여 영조 42년(1766)에 건립되었다. 처음에는 손린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지어졌다가 헌종 10년(1844)에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1864년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으나, 후손들의 노력으로 1967년에 경모재(敬慕齋)로 재건되었고, 1996년에 강당과 사당, 재실을 건립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p> <p>손린은 정구(鄭逵)의 문인으로 어려서부터 효성과 학행이 뛰어났다. 선조 39년(1606)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는데, 광해군 3년(1611)에 정인홍(鄭仁弘)이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자, 종질인 손처눌(孫處訥)과 함께 부정척사문(扶正斥邪文, 옳은 것을 지키고 사악함을 물리치는 글)을 써서 이를 비판하였다. 이 일 때문에 오랫동안 벼슬길이 막혔다가, 안동 향교 교수, 예문관 봉교(奉敎)를 거쳐 인조반정 후 예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 병조좌랑, 단성현감을 지냈다. 정묘호란 때에는 의병장이 되어 활약하였으나, 난후에는 향리로 돌아가 벼슬을 하지 않았다.</p> <p>이 서원의 강당은 지행당(砥行堂)인데, 지행(砥行)은 ‘이름과 행실을 같고 닦는다[砥礪名行]’는 의미로 손린의 좌우명이자 그가 자손들에게 남긴 가훈이다. 그 밖에 사당(祠堂)인 봉암사(鳳巖祠), 서재인 송독재(誦讀齋)가 있으며, ‘문탄 손선생 유허비(聞灘 孫先生 遺墟碑)’가 있다.</p>

32) 이름, 호, 한자 등 제시 방식 어긋남.

33) 연도 제시 방식 어긋남.

34) 훼철 연도: 수성구 누리집과 네이버지식백과(출처: 대한민국구석구석), 서원연합회는 1864년, 수성구 서원, 재실 기초 조사에는 1868년으로 되어 있음.

고종 8년(1871년)은 47개를 제외한 모든 서원이 최종적으로 훼철된 연도임. 이 서원(사사로이 세워진 서원)이 훼철된 것은 1864년이고, 서원철폐령은 1871년임. 이 서원이 훼철된 것은 1964년이므로, 1964년으로 함.

35) 경모재(敬慕齋) 기문(記文), 봉산서원 중건기 등에 의하면 1967년(丁未年)이 맞다.

<개선점>

- 이름과 호, 생몰 연대 제시 방식이 규범에 어긋남.
- 각종 정보가 불명확함: 건립 연도, 서원 승격 연도, 휘철 연도, 복원 연도
- 전체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음. 서원과 인물에 대한 내용이 섞임.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조선 영조 11년(1735년)³⁶⁾에 후손들이 손린(孫遴) 선생의 사당을 지음으로써 시작되어 조선 순조 3년(1803년)에³⁷⁾ 봉산서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1864년 서원 휘철령으로 서원은 없 어지고 1967년에 다시 강당을 지어 경모재(敬慕齋)라고 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 후손들의 노력으로 강당인 지행당(砥行堂), 동재 자리에 사당인 봉암사(鳳岩祠)와 서재인 송독재(誦讀齋)를 세우고 손린 선생을 기리는 유허비도 세웠다.

2009년에는 지행당이 낡아서 크게 수리였으며 건물의 배치와 크기를 보면 지행문이라고 쓴 외삼문인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문탄 손선생유허비가 서 있고 맞은편에 강당이 있다. 이 강당에는 봉산서원과 지행당이라는 두 개의 현판이 붙어 있다.

36) 최초 사당 건립 연도가 다른 곳과 다름.

37) 순조 3년(1803)은 봉암사에 위판을 봉안한 연도임. 서원으로 높여 부른 것은 헌종 10년(1844년)임. 서원연합회 참고.

■ 사월동 지석묘-1

사 월 동 지 석 묘 1	기존 안내문
	<p>사월동 지석묘-1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61길 71(사월동)</p> <p>지석묘^{고인돌}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유적이다. 사월동 지석묘-1에는 지석묘가 6기가 존재하는데, 형식은 남방식이고, 상석의 형태는 판석형, 입체형 등이다. 상석의 재질은 화강암이 대다수이며, 시지 일대에 존재하던 여러 지석묘군 가운데 한 곳으로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유적이다.</p>
	개선안
	<p>사월동 지석묘군 2(沙月洞 支石墓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지석묘[고인돌]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이다. 이곳의 지석묘군은 근처 사월보성타운에 있는 것과 함께 시지 일대에 존재했던 여러 지석묘군 가운데 하나이다.</p> <p>지석묘는 외형상 크게 탁자식(卓子式)과 바둑판식, 개석식(蓋石式) 등으로 나뉜다. 탁자식은 땅 위에 네 개의 받침돌을 세워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형태이고 바둑판식은 땅속에 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형태이며, 개석식은 받침돌이 없이 덮개돌을 지면에 바로 놓은 형태이다. 이곳에 남아 있는 지석묘는 모두 바둑판식이고 덮개돌은 화강암이다.</p> <p>사월동에 지석묘가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청동기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했던 곳임을 말해 준다.</p>

<개선점>

- 내용이 너무 소략함.
- 문단 구분이 불명확함.

■ 상동 청동기 마을

기존 안내문	
상 동 청 동 기 마 을	<p>상동 청동기 마을</p> <p>상동 청동기 마을의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람들의 주 생활무대로 이용된 곳으로 현재는 정화우방팔레스가 자리하고 있다.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0기, 지석묘 6기, 삼국~통일신라시대 주거지 15기, 조선시대 온돌시설 및 주거지 11기, 건물지, 우물, 담장지, 도로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무문토기, 석촉, 반달돌칼에서부터 고배, 시루, 청자, 백자, 기와 등 실생활에 사용된 유물 600여 점이 출토되었다. 청동기 시대 주거지는 평면 방형 또는 원형의 구덩이를 파고 지붕을 얽은 움집의 형태이고 삼국~통일신라시대 주거지 역시 움집의 형태이나 내부에 외줄고래시설을 설치하여 난방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들 주거지들이 아파트 102동 하부에 주로 밀집분포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조선시대 유구들은 101동과 102동 사이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파괴가 상당히 심한 상태였다. 지석묘는 단지 내 공원부지 하부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고 상석은 1기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하부구조만 유존하고 있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공원부지에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지석묘 하부구조인 석곽(관)묘 3기를 이전·복원하여 관람하도록 하였다.</p>
	개선안
	<p>상동(上洞) 청동기(靑銅器) 마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상동 청동기 마을은 정화우방팔레스아파트 단지의 지하에서 발굴된 취락 유적이다.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서 살아 온 조상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 준다.</p> <p>(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발굴 조사에 따르면 여기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0기, 지석묘 6기, 삼국·통일신라시대 주거지 15기, 조선시대 온돌시설 및 주거지 11기, 건물지, 우물, 담장지, 도로 등이 확인되었으며, 무문토기, 석촉, 반달돌칼에서부터 고배, 시루, 청자, 백자, 기와 등 실생활에 사용된 유물 600여 점이 출토되었다.</p> <p>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네모꼴이나 둥근 모양의 구덩이를 파고 지붕을 얽은 움집의 형태이고,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주거지도 움집의 형태이나 내부에 고래* 시설을 설치하여 난방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들 주거지는 102동 지하에 밀집 분포하고 있었음에 비해 조선시대 유구(遺構)*들은 101동과 102동 사이에 많이 파괴된 상태로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지석묘는 단지 내 공원 부지 지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상석은 1기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하부구조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p> <p>여기 공원 부지에 조성해 놓은 모형은 유적의 일부인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지석묘 하부구조인 석곽(관)묘 3기를 옮겨 복원한 것이다.</p> <p>* 고래 :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 불길과 연기가 통하여 나가는 길 * 유구 :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p>

<개선점>

- 문단 구분이 없어서 내용이 구조적으로 전달되지 않음.
- 첫 문장은 유적의 성격과 현 위치의 구조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병렬되어 있음.
- 발굴 내용과 조사 결과를 섞어서 기술하고 있음.

<수정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상동 청동기 마을의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람들의 주 생활무대로 이용된 곳으로 현재는 정화우방팔레스가 자리하고 있다.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0기, 지석묘 6기, 삼국~통일신라시대 주거지 15기, 조선시대 온돌시설 및 주거지 11기, 건물지, 우물, 담장지, 도로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무문토기, 석촉, 반달돌칼에서부터 고배, 시루, 청자, 백자, 기와 등 실생활에 사용된 유물 600여 점이 출토되었다.

청동기 시대 주거지는 평면 방형 또는 원형의 구덩이를 파고 지붕을 얹은 움집의 형태이고 삼국~통일신라시대 주거지 역시 움집의 형태이나 내부에 외출고래시설을 설치하여 난방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들 주거지들이 아파트 102동 하부에 주로 밀집분포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조선시대 유구들은 101동과 102동 사이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파괴가 상당히 심한 상태였다. 지석묘는 단지 내 공원부지 하부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고 상석은 1기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하부구조만 유존하고 있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공원부지에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지석묘 하부구조인 석곽(관)묘 3기를 이전·복원하여 관람하도록 하였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77번지(정화팔레스)

■ 성산 봉수대

山城 산山 烽燧 수燧 대臺	기존 안내문
	기존 안내문 없음.
	개선안
	<p>성산 봉수대(城山 烽燧臺)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봉수대는 불과 연기로 군사 정보를 전달했던 통신시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성산 봉수대는 조선시대에 운용된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봉수대로 수성구의 북동쪽 끝에 해당하는 고산의 남쪽 경사면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p> <p>성산 봉수대의 기록은 『경상도지리지』나 『증보문헌비고』 등 조선시대에 편찬된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는데, 이들은 성산 봉수대가 남서쪽의 법이산 봉수대에서 신호를 받아 북동쪽의 시산(匙山) 봉수대로 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p> <p>2020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이 봉수대의 방호벽은 배 모양[舟形]으로, 그 둘레가 기저부를 기준으로 103.3m, 상부를 기준으로 98.2m인 것이 밝혀졌다. 내지봉수*의 평균 둘레가 70~80m인 것을 감안하면 큰 편에 해당한다. 방호벽과 그 내부에서는 봉수와 관련된 시설 외에 조선시대 백자 조각과 기와 조각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p> <p>* 내지봉수(內地烽燧) : 조선 시대에 서울 남산의 경봉수(京烽燧)와 변경 지역의 봉수를 연결하기 위하여 내지(內地)에 설치한 봉수</p>

■ 성산재

城 山 齋	기존 안내문
	<p>성산재(城山齋)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로33길 6-27(성동)</p> <p>성산재(城山齋)는 인천인(仁川人) 달서재(達西齋)先生 채선수(蔡先修)를 위한 우묘소(寓墓所)³⁸⁾이며 서산서원(西山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현 건물은 1938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4칸 측면 1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남동향 하여 배치되었다. 평면은 일자형(一字形)인데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온돌방 1칸씩을 구성하였다.</p>
	개선안
	<p>성산재(城山齋)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성산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장이었던 달서재 채선수(達西齋 蔡先修, 1568~1634)를 추모하기 위해 1938년에 세워졌다.</p> <p>채선수는 천성이 영민하고 학문을 즐겼는데, 장현광(張顯光)과 정구(寒岡 鄭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과거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 26년(1593)에 권응수(權應銖), 이준(李俊) 등과 함께 군사와 식량을 모아 팔공산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는 화왕산성을 지키고 있던 곽재우(郭再祐)의 휘하에 들어가 활약하였다. 난리가 평정된 이후에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썼다.</p> <p>이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일자형(一字形)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양쪽에 온돌방이 있다.</p>

38) ‘우묘소(寓墓所)’의 잘못된.

<개선점>

- 첫 문장은 주어가 다른 두 문장을 병치하면서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생략해 버림. - 성산재와 달서재를 한 문장으로 엮으면서 주어인 ‘달서재’는 생략함.
- 전체 한 문단
- 달서재(達西齋)先生, 정면4칸 측면 1칸
- 내용이 다소 소략함.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 성산재는 임진왜란 당시의 병장이었던 인천인 채선수(蔡先修)를 위한 우모소(寓慕所)¹⁾이며 서산서원(西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채선수의 자는 경중, 호는 달서재이며 임진왜란 때 최동보, 곽재겸 등과 팔공산에서 창의하여 창녕의 화왕산성을 지키고 난이 평정된 후 자택인 달서재로 돌아와 손처눌, 최동보 등과 경학연구에 전념하였다. 채선수는 인조 2년 이괄의 난에도 창의하여 국난을 평정한 인물로 칭송되었다. 건물은 1938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4칸 측면 1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남동향으로 일자형인데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 온돌방 1칸씩 구성되어 있다.

- 대구 수성구 성동 203번지(성동로33길 6-27)

1. 우모소(寓慕所) :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 옆에 임시로 집을 짓고 사모하는 정(마음)을 나타내는 곳

■ 성주배씨지려비

성 星 주 州 배 裴 씨 氏 지 之 려 閭 비 碑	기존 안내문
	<p>효열 밀양박후성처 성주배씨지려비 孝烈 密陽朴厚成妻 星州裴氏之閭碑</p> <p>효열 밀양박후성처 성주배씨지려비는 1764년(영조40년)에 태어나 1788년(정조 12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24년간 꽃다운 나이로 부끄럼없이 살다 간 효부이면서 열녀였던 성주 배씨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p> <p>열녀배씨는 박후성의 처로서 남편이 이름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자 백방으로 치료를 했으나 병세가 악화되지만 했다.³⁹⁾보다못한 부인은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선혈을 남편의 입안으로 떨어뜨려 원기를 회복시켰으나 결국 4일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p> <p>남편이 죽은 뒤 3년동안 시묘하였고, 그녀는 죽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80세가 넘은 시어머니를 극진한 효성으로 봉양하다가 시모가 죽은뒤 역시 3년동안 시묘를 하였고, 그해 남편의 제삿날에 제사를 지낸뒤 남편의 뒤를 좇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p> <p>배부인의 효행과 열행을 조정에서도 알게 되어 정려(旌閭)가 내려와 1910년 (융희4년) 4월 27일 후손들이 비를 세웠다.</p>
	개선안
	<p>성주 배씨 효열 정려비(星州 裴氏 孝烈 旌閭碑)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앞면에 ‘효열 밀양 박후성처 성주 배씨지려비(孝烈 密陽 朴厚成妻 星州 裴氏之閭碑)’라고 새겨진 이 비석은 24년의 짧은 삶을 효부와 열녀로 살았던 성주 배씨(1764~1788)를 기리기 위해 1910년에 후손들이 세운 것이다.</p> <p>배씨는 박후성의 아내로, 남편이 중병에 걸리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남편의 입안에 흘려 넣는 등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했다. 이런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배씨는 같이 죽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면서 늙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였다. 그 후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3년간 시묘*를 하였고, 시묘가 끝난 그해 남편의 제삿날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은 남편을 따랐다.</p> <p>배씨의 효열(孝烈)이 널리 알려져 조정에서 정려를 내렸고, 이를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이 비석을 세웠다. 수성구청과 수성문화원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이 비석 옆의 보호수에 구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당제(堂祭)*를 지내면서 이 비석에도 제사를 지내 배씨의 숭고한 삶을 기리고 있다.</p> <p>* 시묘(侍墓): 부모나 남편의 상을 당해, 그 무덤 옆에서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사는 일 * 당제(堂祭):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지켜 주는 신인 동신(洞神)에게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 마을 사람들의 무병과 풍년을 빌며 정월 대보름날에 서낭당, 산신당, 당산(堂山) 등에서 지낸다.</p>

39) 주어가 다른 둘 이상의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 성분들 사이의 호응 관계가 맞지 않고, 의미 전달에 장애가 됨.

<개선점>

- 문단 들여 쓰기 하지 않음.
- 어문규범에 어긋난 표기 : 부끄럼없이, 이름모를, 3년동안, 죽은뒤, 지낸뒤
- 문장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긴 편임.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소재지 : 수성구 범물동 산 191번지 --

효열 밀양박후성처 성주배씨지려비(孝烈 密陽朴厚成妻 星州裴氏之閭碑)는 1764년(영조40년)에 태어나 1788년(정조 12년)에 세상을 떠날때까지 24년간 꽃다운 나이로 부끄럼없이 살다 간 효부 이면서 열녀였던 성주 배씨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그녀는 밀양 박씨인 남편 박후성(朴厚成)에게 시집을 와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할 일을 훌륭하게 해냈지만 그녀의 시집살이는 평탄하지는 않았다.

남편인 박후성이 이름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자 그녀는 백방으로 약과 의원을 초대하여 치료했으나 남편의 병세는 악화되지만 했다. 보다 못한 그녀는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선혈을 남편 입안으로 떨어뜨려 얼마동안 원기를 회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죽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 하며 80세가 넘은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러나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남편대신에 3년 시묘를 하고 그해 남편 제사날에 제사를 지낸 뒤 스스로 남편의 뒤를 쫓아 자결하였다.

배부인의 뛰어난 효행과 열행을 조정에서도 알게 되어 정려가 내려와 1910년(융희4년) 4월 27일 후손들이 비를 세웠다.

회색 화강석으로 된 비신은 높이 116cm, 폭 48cm, 두께 17cm이며 비개는 백청색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 팔각지붕형의 비개는 높이 31cm, 폭75cm, 두께44cm이다. 흑청색 화강암으로 된 장방형 비부는 높이 17cm, 폭 70cm, 두께 38cm이다.

1967년 후손들이 세울 때도 비각은 함께 건립하지 않았던 것 같고 현재 범물동 진밭골 체육공원 안에 서있다. 비문을 새긴 깊이가 너무 얇아 건립 연대에 비하여 마멸이 심한 편이다.

■ 솔일재

솔 率 일 一 재 齋	기존 안내문
	<p>솔일재 率一齋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62</p> <p>한 집안의 인심, 나아가 천하의 인심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의미를 가진 솔일재率一齋는 박해朴咳 선생의 묘소를 수호하는 齋室재실로 창건연대는 미상이며 1934년 중창하였으나 1995년 도시계획으로 도롱 편입된 후 1997년 10월 다시 중창하니 정면 5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본채는 넓은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 양간에 2칸의 온돌방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문채와 부속건물이 있다.</p> <p>선생의 호는 귀림歸林, 본관은 밀양密陽이며 아버지 죽은竹隱 박중미 朴中美는 고려조에서 대제학大提學으로 흥건적의 난을 토벌한 공훈으로 밀직부원군密直府院君에 봉군되었으며 할아버지 박진록 朴晉祿 역시 대제학을 지낸 명문가의 후예이다.</p> <p>1347년충목왕 3 차남으로 태어난 선생은 1377년우왕 3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조선 개국 후 사헌부 대사헌을 역임한 뒤 청주淸州 계림촌溪林村에 은거하였다가 다시 경산현 고산방孤山坊 내매리內梅里, 현 신매동로 이거하여 만년을 보내고 돌아가시자 선생은 판밀직사判密直事를 지낸 옥산玉山 전의룡全義龍의 따님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을 두니 단성현감丹城縣監을 지낸 모고당慕古堂 박위 朴 위 (이하 생략)</p>
	개선안
	<p>솔일재(率一齋)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솔일재는 고려말·조선초의 문신인 밀양 박씨(密陽 朴氏) 박해(朴咳)를 기리기 위해 그 후손들이 세운 재실이다. ‘솔일(率一)’에는 한 집안의 인심(人心)과 천하의 인심(人心)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한다.</p> <p>박해는 고려 우왕 3년(1377)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조선 태조 때에는 사헌부 대사헌을 지냈다. 이후 조정이 소란해지자 그는 청주에서 은거하다가 현재의 고산지역으로 옮겨 와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다.</p> <p>솔일재는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34년에 중건되었으나 1995년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되었다. 지금의 건물은 1997년에 새로 지은 것이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일자형인데 넓은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배치되어 있다.</p> <p>재실 앞에는 병조참의 매헌 박응성 의병장 4부자 순국 기적비가 세워져 있다. 박응성은 박해의 5대손으로 임진왜란 때 아들 셋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망월산 일대에서 왜군과 싸우는 등 큰 공을 세웠으나 이후 낙동강 근처의 전투에서 4부자가 함께 순국하였다.</p>

<개선점>

- 전반적으로 한 집안의 내력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일반인을 위한 문화재 안내로서는 다소 부적합함.
- 한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깊. 첫 문단은 전체가 한 문장임.

<수성구 누리집 설명 자료>

현재 수성구 시지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는 솔일재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로서 밀양인 대사헌 박해(朴咳)의 재실이다.

박해는 밀직부원군 중미의 차자(次子)로서, 고려조에 문과에 올라 사헌부 대사헌을 역임하고 국사가 소란하여 청주에 은거하였다가 고산면 신매동에 이주하였다고 한다.

■ 영남제일관

영嶺 남南 제第 일一 관關	기존 안내문
	<p>대구 읍성은 1590년^{선조23}에 처음 만들 때는 흙으로 쌓은 토성土城이었으나, 임진왜란때 허물어진 뒤 1736년^{영조12}에 돌로 다시 쌓아 석성石城을 만들었다.</p> <p>성에는 동서남북에 4개의 정문을 두었는데, 동문은 진동문^{鎭東門}, 서문은 달서문^{達西門}, 남문은 영남제일관^{嶺南第一關}, 북문은拱北門 공북문이라 하였다. 1906년 읍성이 철거될 때 성문들도 함께 철거되었다. 이 영남제일관은 1980년에 망우공원으로 그 자리를 옮겨 중건한 것으로, 형태는 처음의 모습을 참조하였으나 규모는 원래의 것보다 더 크다.</p>
	개선안
	<p>영남제일관(嶺南第一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영남제일관은 원래 대구읍성의 남문이었는데, 1907년 읍성이 철거될 때 함께 철거되었다가, 1980년 이곳에 원래의 형태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다.</p> <p>대구읍성은 조선 선조 23년(1590)에 토성(土城)으로 쌓았다가 임진왜란 때 허물어진 뒤 영조 12년(1736)에 석성(石城)으로 재건되어 대구를 지키는 구실을 해 왔다. 이 성에는 동서남북에 4개의 정문이 있었는데, 동문은 진동문(鎭東門), 서문은 달서문(達西門), 남문은 영남제일관(嶺南第一關), 북문은 공북문(拱北門)이라 하였다.</p> <p>1907년 대구읍성이 철거될 때 사방의 문도 함께 없어졌으나 남문인 영남제일관은 이곳 금호강 언덕 위에 다시 세워져 대구의 상징적인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p>

<개선점>

- 영남제일관에 대한 기술은 마지막 한 문장뿐임.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48(만촌동)

유래⁴⁰⁾

우리민족은 고래(古來)로 구릉과 산성을 방수(防守)의 요충으로 중시하여 각종 성(城)을 쌓았으나 평지에 성을 축조하는 것은 드물었다. 지방행정관서가 있는 곳의 평지에 축성된 대구 읍성(邑城)은 1590년(선조23년)에 처음 만들 때는 흙으로 쌓은 토성(土城)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허물어진 뒤 1736년(영조 12)에 돌로 다시 쌓아 석성(石城)으로 만들었다. 성에는 동서남북에 4개의 정문을 두었는데, 동문은 진동문(鎭東門), 서문은 달서문(達西門), 남문은 영남제일관(嶺南第一關), 북문은 공북문(拱北門)이라 하였다. 1906년 읍성이 철거될 때 성문들도 함께 철거되었다. 현재의 영남제일관은 1980년에⁴¹⁾ 그 자리를 옮겨 새로 세웠으나 성루(城樓)의 위치·규모·품격 면에서 원형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 대구제일의 향토상징 관문으로서 금호강과 함께 대구시민들이 대자연의 운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다.

40) 다른 문화유산과 달리 내용을 ‘유래’와 ‘지금’으로 나누어 제시함.

41) 1977년 정제진 대구시장이 주관하여 중창 계획 수립, 1980년에 준공.(서정남 1981:23)

■ 영모재

영永 모慕 재齋	기존 안내문
	<p>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산119번지</p> <p>중화인(中和人) 양달화(楊達和 1694~1756)의 재사(齋舍)이며 1913년에 건립하였다. 양달화(楊達和)의 자(字)는 태삼(泰三)이며 호(號)는 지촌(池村)이다. 대사헌(大司憲) 대봉선생(大峰先生) 양희지(楊熙止 1439~1504)의 7세손(七世孫)으로⁴²⁾ 선생(先生)은 천성(天性)이 돈후(敦厚)하고 효성(孝誠)이 지극하였으며, 또한, 근면성실(勤勉性實)⁴³⁾하여 학문(學問)에 힘써 향리(鄉里)에서 명망(名望)이 높았다. 무학산(舞鶴山) 아래에 학산서당을 열고 족당(族黨)과 향리(鄉里)의 자제들을 교육하여 그 교화(教化)가 컸으며, 선생(先生)은 영조(英祖) 병자(丙子) 1756년에 향년 63세로 졸(卒)하셨으며 영모재(永慕齋)는 지촌선생을 사모(思慕)하고 추모(追慕)하는 재사이다.</p>
	개선안
	<p>영모재(永慕齋)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영모재는 지촌 양달화(池村 楊達和 1694~1756)를 기리기 위해 1913년에 후손들이 그의 묘소 아래에 세운 재실이다.</p> <p>양달화는 조선 성종 때 대사헌을 역임한 양희지(楊熙止)의 7대손으로, 천성이 돈후(敦厚)하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근면 성실하고 학문에 힘써 향리(鄉里)에서 명망이 높았던 인물이다. 특히 무학산 아래에 학산서당을 열고 문중과 향리의 자제들을 교육하여 그 미친 영향이 컸다.</p> <p>이 재실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일자형(一字形)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왼쪽 2칸은 방이고, 오른쪽 1칸은 대청이다. 방의 앞에는 툇마루를 두었고, 왼쪽 측면에는 반침을, 오른쪽 측면에는 쪽마루를 두었다.</p>

42) 학산재 안내판에는 '7대손'으로 되어 있음.

43) 誠實의 잘못임.

<개선점>

- 내용의 통일성이 부족하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개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앞부분에서 한 번 제시되는 것이 좋음.
- 전체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음. 내용 구조화가 필요함.

■ 영사재

영 사 재 永 思 齋	기존 안내문
	<p>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35길 61(황금동 474-1번지)</p> <p>이 건물은 성산인(星山仁⁴⁴) 배석봉(裴錫鳳)과 배영(裴泳)을 추모하기 위해 1928년 후손들에 의해 세운 재사⁴⁵이다.⁴⁶ 배석봉의 호는 모재(慕齋)이며 부병(父病)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고 돌아가신 뒤에도 여묘(廬墓)하였다. 배영(裴泳)의 호는 공천(孔川)이며 홍매산(洪梅山)의 문인(文人)이다. 천성(天性)이 독효(篤孝)하여 모병(母病)에 단지(斷指)하여 삼일(三日)을 희생(回生)케 하고 상사(喪事)에 죽만을 먹고 3년을 마쳤다. 솟을대문으로 들어서면 방 2칸 대청 2칸의 정침(正寢)이 골개와 팔작지붕으로 되어있다.</p>
	개선안
	<p>영사재(永思齋)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영사재는 성산 배씨(星山 裴氏) 모재 배석봉(慕齋 裴錫鳳)과 그의 종질(從姪)인 공천 배영(孔川 裴泳, 1810~1852)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928년에 후손들이 세운 재실이다. 배석봉은 부친이 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드렸고 돌아가신 후에는 무덤 옆에서 시묘*하였다. 배영은 유학자로 효행과 학행이 뛰어났다. 그는 부친상과 조모상, 모친상을 연이어 당해 9년 동안 상중에 있으면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예를 갖추어 시묘하였고, 특히 병환 중의 모친께 손가락의 피를 드려 3일 동안 희생하게 했다. 그는 향리의 풍속을 교화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고종 29년(1892)에 정려가 내려졌다.</p> <p>이 재실은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일자형(一字形)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청 2칸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1칸씩 배치되어 있다. 방의 앞에는 툇마루를, 건물의 왼쪽에는 쪽마루를, 뒷면에는 반침과 쪽마루를 두었다.</p> <p>* 시묘(侍墓): 부모나 남편의 상을 당해, 그 무덤 옆에서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사는 일</p>

44) 한자 오류. ‘人’을 ‘仁’으로 잘못 씀.

45) ‘재사(齋舍)’는 ‘조선 시대에, 성균관·사학(四學)·향교 따위에서 유생들의 기숙사로 쓰던 건물’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혼동될 수 있음.

46) 비문임. 후손들이 세운 재사이다.

<개선점>

- 전체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음.
- 한자어의 남용. 단어로 쓰이지 않는 어휘도 사용함.
- 비문이 여럿 있음.
- 관련 인물 소개와 건물에 대한 소개가 분리되지 않음.

<참고 자료>

- 행복수성 문화관광

이 건물은 성산인(星山仁) 배석봉과 배영을 추모하기 위해 1928년 후손들에 의해 세운 재사이다. 배석봉의 호는 모재(慕齋)로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지극한 효자로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있을 때 단지주혈(斷指注血) 하였으며 돌아가신 뒤에도 여묘(廬墓)하였다. 배영의 호는 공천(孔川)으로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지극한 효자로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있을 때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삼일을 희생하게 하였으며 돌아가신 후에 죽만을 먹으며 3년 상을 마쳤다.

이 재실은 외삼문인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앞면이 4칸인데, 대청 2칸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1칸씩 있는 강당이 있다. 옆면은 3칸이고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또 집의 서쪽으로 좁은 뒷마루가 있고 마루와 뜨락 사이에는 벽돌로 쌓아 올려 마루 밑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

■ 오천서원

오 梧 천 川 서 書 원 院 47)	기존 안내문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2안길 20(파동) 이 서원은 조선 전기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한 대봉(大峰) 양희지(楊熙止, 1439~1504) 선생 ⁴⁸⁾ 을 기리기 위하여 1786년(정조 10)에 건립하였다. 선생의 자(字)는 가행(可行), 호(號)는 대봉(大峰), 본관은 중화(中和)이다. 1462년(세조 8) 24세에 생원·진사시에 합격, 1474년(성종 5) 문과에 급제하여 도승지, 대사간,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498년(연산군 4)에 무오사화(戊午史禍)가 일어나 명현(名賢) ⁴⁹⁾ 들이 화(禍)를 당하자 벼슬에서 물러났다. 1500년(연산군 6) 대사간(大司諫)으로 상소를 하여 사화(士禍)로 서북도(西北道)로 유배된 사람들의 귀양지를 남쪽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중종반정 후 임금께서 사제문(賜祭文)을 내렸다. 서원은 1962년에 복원하였으며, ⁵⁰⁾ 2009년에 ⁵¹⁾ 중수하였다. ⁵²⁾ 저서로 《대봉문집》이 있다.
	개선안
	오천서원 梧川書院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 오천서원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대봉 양희지(大峰 楊熙止, 1439~1504)를 기리기 위하여 정조 10년(1786)에 건립되었다. 이후 고종 5년(1868)에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62년에 복원되었으며, 2010년에 중수하였다. 양희지는 세조 8년(1462)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성종 5년(1474)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대사간, 충청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성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연산군 4년(1498)에 무오사화가 일어나 명현들이 화를 당하자 벼슬에서 잠시 물러났다. 2년 후에는 사화로 인해 서북도로 유배된 사람들의 귀양지를 남쪽으로 옮기도록 상소를 올려 관철시켰다. 그가 죽은 후 중종 2년(1507)에 임금이 제문(祭文)을 내렸다. 이 서원의 건물들은 두 영역으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외삼문과 강당, 서재[무릉재(武陵齋)]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당[오천사(梧川祠)]이 한 단 높게 흠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47) 지금은 梧川書院으로 되어 있음. 번체로 통일하는 것이 좋음.

48) 별칭은 붙이지 않음.

49) 일반적인 단어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음.

50) 복원 연도의 근거가 불명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1905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당호를 무릉재로 했고, 1971년에 사당(오천사)을 신축하면서 당호도 오천서원으로 바꾸었다고 되어 있음.

51) 오천서원 답사 사진 자료 「서원중건운」의 내용으로 보면 중건을 2010년 4월 28일에 마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중건 연도는 2009년이 아닌 2010년임.

52) 이 문장은 서원 건물에 대한 내용이므로, 앞 문단으로 보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좋음.

<개선점>

- 서원에 관한 내용과 양희지 선생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
- 문단 들여쓰기를 하지 않음.
- 성분 간 호응이 되지 않는 문장이 여럿 있음.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 수성구 파동 433번지

조선시대 서원에 대해 잠시 언급한 후 오천서원에 대해 설명할까 한다.⁵³⁾

서원은 조선조 선비들의 혼이 깃든 곳으로 선비들의 문화와 영욕(榮辱)을 함께 하면서 우리 교육사에서 빛과 어둠의 두 자취를 남겨 놓았다.

초창기 서원은 선비정신이 충만한 학문의 도장(道場)으로 성리학의 세계 속에서 성인(聖人)을 향한 구도(求道)의 열정을 불태웠던 곳으로 양반 관료제 사회를 지탱하는 지식인 관료집단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소였으나 후세에 이르러 서원의 난립으로 권력화된 정치집단으로 변질되어 정쟁(政爭)의 장이 되면서 서원 본래의 선비를 양성하는 교육기능은 유명무실해지고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제향(祭享)기능으로 변질되었다.

오천서원은 조선 성종 때 대사헌(大司憲)을 지낸 대봉(大峰) 양희지(楊熙止)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1744년(영조 20)에 건립된 것으로 대구지역의 23개 서원 가운데 4번째로 건립되었으며, 대봉 선생은 평안도 중화 출신으로 1474(성종 5)문과에 급제하였다.

오천서원은 야트막한 야산기슭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개의 영역으로 분리 배치되어 있다. 좌측으로 외삼문(外三門), 강당(講堂), 제수청(祭需廳)이 일곽(一廓)을 이루고 있으며 강당 우측에 제향공간(祭享空間)인 사당이 한단 높게 토장(土牆)으로 둘러싸여 일곽(一廓)을 이루고 있다.

외부에서 별도로 진입할 수 있게 강당과 사당의 출입이 분리되어 있으며, 향사(享祀)시 활동이 편하도록 강당 우측에 협문(夾門)을 두어 사당과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가운데 2칸 마루를 두고 좌우에 방을 배치한 전형적인 강당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건물 앞쪽과 마루 뒤쪽에 퇴를 두었고 우측 온돌방은 마루와 4분합 들문을 두어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좌측 온돌방은 우측과 달리 쌍여닫이문을 설치해 두었고 마루 앞쪽에 4분합 들문을 설치하여 폐쇄된 마루를 구성한 점은 남부지역 강당평면에서 보기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사당인 오천사(梧川祠)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전퇴(前退)가 없는 홀처마 맞배지붕의 3량가구 건물이나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사당 뒤편에는 양희지를 추모하는 비석 5기가 있다.

53) 서원 전반에 대한 설명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 옥수천 공룡 발자국

옥 수 천 공 룡 발 자 국	기존 안내문
	<p>대구 옥수천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Diossaur Tracksite of Uksuch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수천 ○ 시대: 약 1억 만년 전(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 하양층군 반야월층) ○ 치적층의 특징: 암회색 또는 중회색의 세일과 사암 <p>옥수천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에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 발자국이 모두 14개(추정)정도 보존되어 있다. 두 마리의 초식공룡(용각류)들이 남긴 발자국을 두 개의 층준에서 관찰할 수 있다. 하부층준(하천)에 있는 보행렬에서는 앞발과 뒷발이 모두 남겨져 있으며, 왼발과 오른발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좁은 점이 특징이다. 중간 크기 정도의 용각류 공룡에 해당하며, 뒷발의 길이는 약 25cm, 그리고 폭은 19cm 정도이다. 상부층준(보도)에서는 보행렬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4개(추정) 정도의 공룡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p> <p>* 옥수천 공룡발자국 최초발견 - 2001년 성명여중 박두광 교사</p> <p>용각류 공룡이란? 긴 목과 꼬리, 작은 머리, 그리고 육중한 몸집을 가진 초식공룡으로 네 발로 걸었다. 대표적인 용각류 공룡에는 카마라사우르스, 브리키오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등이 있다.</p>
	개선안
	<p>옥수천(旭水川) 공룡(恐龍) 발자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이곳은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모두 14개 정도 남아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로 2001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용각류* 초식공룡 두 마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이 공룡 발자국들은 하부의 하천 바닥 단층과 상부의 보도 단층에서 발견된다.</p> <p>하천 바닥 단층에 남은 발자국은 걸음걸이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줄을 짓고 있다. 앞발과 뒷발 발자국이 모두 남아 있고 왼발과 오른발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좁은 것이 특징이다. 뒷발을 기준으로 보면, 길이는 약 25cm, 그리고 폭은 19cm 정도로, 중간 크기의 공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천 옆의 상부 단층에는 모두 4개 정도의 발자국이 확인되는데 하천 바닥 단층과 같은 걸음걸이의 줄을 짓고 있지는 않다.</p> <p>옥수천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는 이 지역이 사람이 살기 훨씬 전인 1억년 전쯤에는 공룡들의 서식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p> <p>* 용각류 공룡 : 긴 목과 꼬리, 작은 머리, 그리고 육중한 몸집을 가진 초식공룡으로 네 발로 걸었다. 대표적인 용각류 공룡에는 카마라사우르스, 브리키오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등이 있다.</p>

<개선점>

- 다른 안내문과는 달리 개조식으로 구성하였음.
- ‘층준’, ‘보행렬’ 등의 전문용어가 설명 없이 제시됨.
- 내용의 구조화가 필요함.

<수성구 누리집 설명 자료>

- 옥수천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에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발자국이 모두 14개(추정)정도 보존되어 있다.

두 마리의 초식공룡(용각류)들이 남긴 발자국을 두 개의 층준에서 관찰할 수 있다. 하부층준(하천)에 있는 보행렬에서는 앞발과 뒷발이 모두 남겨져 있으며, 왼발과 오른발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좁은 점이 특징이다. 중간 크기 정도의 용각류 공룡에 해당하며, 뒷발의 길이는 약 25cm 그리고 폭은 19cm 정도이다. 상부층준(보도)에서는 보행렬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4개(추정) 정도의 공룡발자국을 확인 할 수 있다.

※ 용각류 공룡이란?

긴 목과 꼬리, 작은 머리, 그리고 육중한 몸집을 가진 초식공룡으로 네발로 걸었다. 대표적인 용각류 공룡에는 카마라사우루스, 브리키오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등이 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수천

■ 이득심 송덕비

이 李 득 得 심 心 송 頌 덕 德 비 碑	기존 안내문
	기존 안내문 없음.
	개선안
	이득심 송덕비(李得心 頌德碑)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
	<p>이 비석은 조선 고종 때 왕실의 상궁을 지낸 이득심(李得心)의 선행을 기리는 송덕비이다. 왼쪽의 비석은 1923년에 세워졌는데,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닳아서 1980년에 같은 내용을 새긴 비석을 하나 더 세웠다.</p> <p>이득심은 1850년 전후 대구 중동에서, 현풍 현감을 지낸 인천 이씨(仁川 李氏) 이재연(李在淵)의 딸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궁녀가 되어 내명부 정5품인 상궁에까지 올랐다. 고종 때 국운이 쇠퇴하고 조정의 조직과 기능이 축소되자, 그는 상궁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 흉년과 조세로 힘들어 하는 인근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목격하고 사재를 털어 그들을 구휼하고 조세를 덜어주었다. 그녀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주민들이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 세운 비석이 왼쪽의 비석이다.</p> <p>처음 이 비석이 세워진 곳은 지금의 수성구 중동네거리 부근으로 추정된다. 1966년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그 부근의 비목(碑木)이라 불렀던 당산나무 아래에 두꺼비바위와 이 비석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비석은 중동 경로당 앞 길가로 옮겨졌다가, 2016년 11월에 현재 자리로 옮겨졌고, 두꺼비바위는 지금 수성구청 정문 옆 분수대 안에 놓여 있다.</p>

정충각과 정효각

정旌 충忠 각閣 과 정旌 효孝 각閣	기존 안내문
	기존 안내문 없음.
	개선안
	청주정씨 정충각과 정효각(淸州鄭氏 旌忠閣 旌孝閣)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
	<p>이 전각(殿閣)은 청주 정씨(淸州 鄭氏) 노암 정동범(蘆庵 鄭東範, 1710~1793)의 충의와 그의 아들 면암 정지언(勉庵 鄭之彦, 1740~1814)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각이다.</p> <p>정동범은 영조 4년(1728)에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데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으나 모든 상훈을 사양하고 은거하여 학문과 후학 양성에 전념하는 한편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겼다. 작고한 후에 유림에서 그 충의와 효행을 조정에 알렸고, 정조 20년(1796)에 그의 충의를 표창하는 정려가 내려졌다.</p> <p>정지언은 정동범의 둘째 아들로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였다. 조부모의 상중에는 시묘*하는 부친의 시중을 들었고, 부친의 병환 중에는 극진하게 간호하여 쾌차하게 했으며, 상을 당하자 3년간 정성을 다해 시묘하였다. 고종 30년(1893)에 조정에서 그의 효행과 부친의 충의를 표창하는 정려를 함께 내렸다.</p> <p>이 정려각은 고종 30년(1893)에 건립되었으며, 1995년에 크게 중수되었다. 정충각 안에는 정동범의 정려 편액이, 정효각 안에는 정지언의 정려 편액이 걸려 있고, 가운데 칸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전각 담장 밖에는 두 사람이 충신과 효자 정려를 받은 내력을 새긴 정충비와 정효비가 있는데 이들은 1996년에 충효재와 함께 세워졌다.</p> <p>* 시묘(侍墓): 부모나 남편의 상을 당해, 그 무덤 옆에서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사는 일</p>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 수성구청 누리집, 행복수성 문화관광, 문화재-향토 문화유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공원로7길 7 (시지동)

정충각(旌忠閣)과 정효각(旌孝閣)은 충효재의 동편에 있는데 노암(蘆庵) 정동범(鄭東範)의 충의(忠義)와 면암(勉庵) 정지언(鄭之彦)의 효행(孝行)을 기리기 위하여 1936년에 건립하였다.

노암은 1728년(영조4)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공을 세웠으며, 면암은 부친께서 병이 나자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여 쾌차(快差)하게 하였으며 상(喪)을 당하여는 3년간 시묘(侍墓)를 하였다. 1892년(고종29)⁵⁴에 유림의 상소(上疏)로 부자에게 정려(旌閭)를 내렸다. 정려각 앞에는 1996년에 두 분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비석이 있다.

54) 정려 현판의 의하면 고종 30년(1893)으로 수정되어야 함.

■ 청호서원

청 靑 호 湖 서 書 원 院	기존 안내문
	<p>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250-14</p> <p>이 서원은 조선 중기 학자인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 1553~1634)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1694년(숙종 20) 선생이 강학한 영모당(永慕堂) 옛터에 건립하였다. 모당은 계동(溪東) 전경창(全慶昌)의 제자로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과 함께 연경서원(研經書院)과 영모당에서 강학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으며 대구 유학을 중흥시킨 분이다. 임진왜란(1592년) 때에는 대구지역 의병대장을 역임하였다. 1755년(영조 31)에는 제자 사월당(沙月堂) 류시번(柳時藩)을 배향하였다. 이때 모당의 6대조로 세종 때 집현전(集賢殿)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역임한 격재(格齋) 손조서(孫肇瑞) 선생을 최존위(最尊位)로 봉안하였다. 저서로 <모당문집>이 있다.</p>
	개선안
	<p>청호서원(靑湖書院)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청호서원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모당 손처눌(慕堂 孫處訥, 1553~1634)을 기리는 서원이다. 숙종 11년(1685)에 사당으로 건립되었다가 1694년에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후에 제자인 유시번(柳時藩)과 정호인(鄭好仁), 그리고 6대조인 손조서(孫肇瑞)를 차례로 배향하였다. 서원 철폐령으로 고종 5년(1868)에 훼철되었다가 1930년에 청호서당으로, 1972년에 청호서원으로 복원되었다.</p> <p>손처눌은 학문과 효행으로 이름이 높은 유학자였는데, 전경창(全慶昌)과 정구(寒岡 鄭逌)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장현광(張顯光), 서사원(徐思遠) 등과 교유하였다. 15세에 향시(鄕試)에 합격하여 주목을 받았으나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싸웠고, 이후에는 대구향교 재건과 후학 교육에 주력하여 지역의 유학을 중흥시킨 공이 있다. 광해군 3년(1611) 정인홍(鄭仁弘)이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자, 당숙인 손린(孫遴)과 함께 부정척사문(扶正斥邪文, 옳은 것을 지키고 사악함을 물리치는 글)을 지어 비판하였다.</p> <p>이 서원은 화재로 인한 소실과 중건, 그리고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쳤는데, 강당인 부교당(敷敎堂)과 사당인 상인사(尙仁祠)는 1972년에 중건되었다. 서원이 훼철된 후 1904년에 이곳이 서원이었음을 알리기 위해 세웠던 모당 손선생 유허비(慕堂 孫先生 遺墟碑)도 1972년에 다시 건립되었다.</p>

<개선점>

- 내용이 '서원-인물-서원-인물'로 구성되어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음.
- 전체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음.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 수성구 황금동 271번지

이 서원은 조선조 대학자였던 모당(募堂) 손처눌(孫處訥)(1553~1634), 사월당 류시번(柳時蕃), 양계(陽溪) 정호인(鄭好仁), 모당의 6대조인 격재(格齋) 손조서(孫肇瑞) 네 분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모당 손처눌의 자는 기도(幾道)이며, 한강(寒岡) 정구문하(鄭逵門下)에서 사사(師事)하여 학행과 효우로 스승에게 인정받았으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대장으로 활동하였다.

난리(亂離) 중 부모상(父母喪)을 당하였으며, 이를 옳게 못 모신 것을 한탄하면서 임진왜란이 평정되자 종신여모(終身廬慕)한다는 뜻에서 자기 거처를 영모당(永慕堂)이라 하였다. 난(難) 후 그는 후진 양성에 전념하여 영모당은 언제나 문전성시(門前盛市)를 이루었고 '영모당통강제자록(永慕堂通講諸子錄)'에는 제자 202명의 명단이 적혀 있어 당시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마을 앞에 청호지(靑湖池)를 만들어 영농에도 힘썼으며, 조정에서의 논공행상도 사양하였으며 다만 대구향교의 최고 책임자인 도유사(都有司)를 12년간 맡았다. 손조서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대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한림학사로서 필재(畢齋)와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고 단종 때 봉산군수(鳳山郡守)로 있다가 단종의 참사 소식을 듣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 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밀양)으로 내려가 후학 교육에 전념하였다.

청호서원 역시 1864년⁵⁵⁾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으며 1947년경 강당만 세웠다가 1968년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현재의 건물은 1969년 강당과 위패를 모신 상인사(尙仁祠)를 중건한 것이다. 서원 입구에 모당선생 유허비(遺墟碑)도 세웠다.

55) 이 곳을 제외한 다른 여러 문헌이나 자료에는 훼철 연도가 1868년으로 되어 있음.

■ 충효재와 모운당

충 효 재 齋 와 모 慕 운 雲 당 堂	기존 안내문
	<p>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공원로7길 7 (시지동)</p> <p>충효재(忠孝齋)는 청주정씨(淸州鄭氏)의 재실로 대대로 살아온 세거지가 도시화로 아파트 단지가 되자 1995년에⁵⁶⁾ 선조의 제향(祭享)을 위하여 건립하였다. 충효재의 서편에는 모운당(慕雲堂)이 있는데 1728년(영조4)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공을 세운 노암(蘆庵) 정동범(鄭東範, 1710~1793)과 효자 면암(勉庵) 정지언(鄭之彦, 1740~1814) 부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1863년(철종 14)에 건립하였다. 노암은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이 되었으며, 면암은 손자 자헌대부 정필석(鄭弼錫)의 귀(貴)함으로 통정대부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되었다.</p>
	개선안
	<p>충효재(忠孝齋)와 모운당(慕雲堂)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충효재는 청주정씨(淸州 鄭氏) 문중에서 노암 정동범(蘆庵 鄭東範, 1710~1793)과 면암 정지언(勉庵 鄭之彦, 1740~1814) 부자의 충의와 효행을 기리기 위해 1996년에 건립한 재실이다. 모운당은 원래 정동범이 선친의 시묘*를 마치고 영조 39년(1763)에 지은 강학(講學) 공간이었다. 순조 3년(1803)에 개축하면서 모운당(慕雲堂)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철종 14년(1863)에 중건하여 정동범 부자를 제향(祭享)하는 공간으로 바꾸었으며, 1995년에 크게 중수하였다.</p> <p>정동범은 영조 4년(1728)에 19세의 나이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데 참여하여 공을 세웠으나 상훈을 사양하고 은거하여 학문과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81세 때에는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使)와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임명되었다.</p> <p>정지언은 정동범의 둘째 아들로 효행이 지극하여 병환 중의 부친을 극진히 간호하여 쾌차하게 했고,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시묘하였다. 죽은 후에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p> <p>충효재의 동편에는 정동범 부자의 충의와 효행을 기리는 정충각과 정효각이 있고 앞에는 1996년 충효재를 건립할 때 세운 정충비와 정효비가 있다.</p> <p>* 시묘(侍墓): 부모나 남편의 상을 당해, 그 무덤 옆에서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사는 일</p> <p>* 수직(壽職):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은 백성에게 특별히 베풀어 내리던 명예직 벼슬</p>

56) 충효재 낙성 고유첩에 의하면 1995년 6월에 착공하여 1996년 9월에 완공되었음.

<개선점>

- 전체 한 문단, 내용이 통일성이 부족하여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내용이 다소 소략함.
- 연도 제시 방식이 문화재청 지침과 다름.
- 문화재의 가치로 볼 때, 모운당이 앞서야 할 것으로 보임.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공원로7길 7 (시지동)

충효재(忠孝齋)는 청주정씨(淸州鄭氏)의 재실로 대대로 살아온 세거지가 도시화로 아파트단지가 되자 1995년에 선조의 제향(祭享)을 위하여 건립하였다. 충효재의 서편에는 모운당(慕雲堂)이 있는데 1728년(영조4)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공을 세운 노암(蘆庵) 정동범(鄭東範, 1710~1793)과 효자 면암(勉庵) 정지언(鄭之彦, 1740~1814) 부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1863년(철종14)에 건립하였다.

노암은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이 되었으며, 면암은 손자 자현대부 정필석(鄭弼錫)의 귀(貴)함으로 통정대부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되었다.

■ 파동 바위그늘 유적

파 동 바 위 그 늘 유 적	기존 안내문
	<p>파동바위그늘 주소: 수성구 파동 산112번지 시대: 청동기시대</p> <p>바위그늘은 신천변에서 약 30m정도 떨어져 있으며 신천과는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면서 연결되나 바위그늘 뒤쪽은 경사가 급한 산사면이다.</p> <p>바위그늘의 크기는 가로 8.5m, 높이 3m정도이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전체적으로 앞쪽이 좁고 뒤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평면사다리꼴 모양이다. 앞면은 비교적 편평하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쪽이 아래쪽보다 약2m정도 돌출되었고, 30도 가량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p> <p>2000년 12월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 갈돌, 굽개 등과 삼국시대 토기편, 고려·조선시대 자기편 등이 확인되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p>
	개선안
	<p>파동 바위그늘 유적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바위그늘유적은 바위의 윗부분이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선사시대에 주거 공간으로 이용된 자연유적이다. 인류가 본격적인 정착생활을 하기 전의 흔적이므로 그 지역의 역사가 이미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p> <p>파동 바위그늘유적은 구석기시대 후기 이후의 주거 흔적으로 추정되는데, 크기는 가로 8.5m, 높이 3m 정도이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전체적으로 앞쪽이 좁고 뒤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평면 사다리꼴 모양이다. 옆에서 보면 위쪽이 아래쪽보다 약 2m 정도 돌출되었고, 앞으로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 어느 정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바위그늘유적이 위치한 이곳 산성산 기슭 신천변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인근에는 여러 시대에 걸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2000년 12월에 대구박물관에서 실시한 조사를 통해, 이 바위그늘 주변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조각, 갈돌, 굽개 등과 삼국시대 토기 조각, 고려·조선시대 자기조각 등이 발굴되었는데, 이 유물들은 현재 대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p>

<개선점>

- 유적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없이 바로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 바위그늘유적의 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문단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등 어문규범에 어긋난 표기가 보인다.

<수성구청 누리집 설명 자료>

수성구의 남쪽 경계지점인 장암사로 가는 길 입구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유적은 신천의 상류지역으로 유적의 서쪽으로 산성산이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법이산이 자리하여 좁고 긴 협곡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유적의 위치는 신천 상류의 서안이고 산성산에서 북쪽으로 뺀 내린 지형의 동쪽 사면의 말단부에 해당하며 신천을 건너면 파동의 주거지역이 된다. 일반적으로 암음유적은 강이 내려다보이는 강가에 위치하는데 파동유적도 입지조건이 유사하다.

2000년 12월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학술발굴조사 차원으로 실시하였는데 암음의 크기는 가로 8.5m, 높이 5m정도이다. 전체적인 구조는 입구가 좁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평면사다리꼴 모양이다.

암음의 주체부에 해당하는 암석의 앞면은 비교적 편평하며 측면에서 보면 위쪽이 아래쪽보다 약 2m정도 돌출 되었고, 30도 가량 기울어져 있어 나무를 이용하면 충분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역할을 할 수 있었다.

파동 암음유적은 신천변에서 약 30m 떨어져 위치하고 신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나 암음의 뒤쪽으로는 경사가 급한 산사면으로 되어있다. 또 암음의 앞쪽에는 어느 시기에 암음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5m정도의 낙반암이 위치하고 있다. 파동 암음유적에서 수습된 유물은 신석기시대의 갈돌, 굽개와 청동시가지대의 무문토기편, 박편 등과 삼국시대의 토기편, 고려, 조선시대의 자기편 등 16점이 확인되었다.

■ 학산재

학鶴 산山 재齋	기존 안내문
	<p>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14길 103</p> <p>학산재는 영조 때 학자인 지촌(池村) 양달화(楊達和, 1694~1756) 선생의 강학소에 건립한 재실이다. 지촌은 성종 때 대사헌을 역임한 대봉(大峰) 양희지(楊熙止) 선생의 7대손으로 이곳 무학산 아래 서당을 짓고 강학하였다. 이후 후손들이 공부하는 서당으로 운영하였는데, 1890년(고종 27)에 중수(重修)를 하고 학산재(鶴山齋)라고 하였다. 중화양씨(中和楊氏) 지촌문중(池村門中)의 재실로 강당에는 지촌이 지은 시와 많은 편액(扁額)이 걸려 있다.</p>
	개선안
	<p>학산재(鶴山齋)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p> <p>학산재는 중화 양씨(中和 楊氏) 지촌 양달화(池村 楊達和 1694~1756)를 추모하기 위해 그가 생전에 강학하던 곳에 후손들이 세운 재실이다.</p> <p>양달화는 조선 성종 때 대사헌을 역임한 양희지(楊熙止)의 7대손(七代孫)이다. 천성이 돈후(敦厚)하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근면성실하고 학문에 힘써 향리에 명망이 높았다. 이곳 무학산 아래에 학산서당을 열고 문중과 향리의 자제들을 교육하였는데, 그가 죽은 뒤에도 후손들이 이곳을 서당으로 운영하다가 고종 27년(1890)에 재실로 중건(重建)하고 학산재(鶴山齋)라는 이름을 붙였다. 강당에는 양달화가 지은 시와 여러 개의 편액(扁額)이 걸려 있다. 특히 김성근(金聲根), 서석지(徐錫止), 정학교(鄭學教) 등 당시 영남권의 대표적인 명필들이 쓴 글씨가 여럿 걸려 있다.</p> <p>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인 일자형(一字形)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왼쪽 1칸은 방, 가운데 2칸은 대청, 오른쪽 1칸 반은 방, 반 칸은 툇마루로 되어 있다. 건물의 왼쪽 측면과 뒷면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p>

<개선점>

- 전체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음. 내용 구조화가 필요함.
- 내용이 너무 소략함.
- 개요에 해당하는 내용이 흩어져 있다.

<수성구 누리집 설명 자료>

고려 고종 때 정승을 지낸 중화양씨(中和楊氏)의 시조인 양포(楊浦)의 후손 지촌(池村) 양달화가 학산재를 설립하여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곳이다. 양달화는 1500년(연산군16년)때 오늘날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대사헌을 지낸 대봉 양희지의 후손으로 문행(文行)으로 향리에게⁵⁷⁾ 명망이 높았다.

이 서당은 최초에는 1700년(숙종29년)에⁵⁸⁾ 양달화가 초가로 지었다가 그 후 1890년 후손들이 재실을 증건하여 선조를 경모하고 후진을 계도하는 중화 양씨의 종재(宗齋)로 수호하고 있다. 재호(齋號)는 무학산이라는 뒷산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현재의 건물은 1997년 초에 중수하였다. 정문 현판은 당대의 문신 대서예가 김성근(고종 28년 1891)이 썼으며, 본단 왼편에 제광정(霽光亭) 현판은 양달화 후손 양재호가 썼고 그 오른편 학산재는 정학교가 썼다.

57) '에'가 맞음.

58) 양달화의 나이 만 6세때임. 확인 필요함.

■ 효자각

효 孝 자 子 각 閣	기존 안내문
	<p> 효자각(孝子閣)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80 건립연대 조선시대 고종 신묘년(辛卯年) 1891년경⁵⁹⁾ </p> <p> 이 효자각은 조선조 후기 효자였던 중화인(中和人) 학산공 양해일(鶴山公楊海一), 우산공 양헌방(又山公 楊憲邦) 양 부자(兩 父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양해일(1797~1873)은 아버지를 극진히 섬겼으며 목숨이 경각(頃刻)에 달했을 때 단지(斷指)하여 소생시켜 수일을 연명시켰다. 아들 양헌방(1826~1878) 역시 아버지의 운명(殞命)을 앞두고 식음을 끊고 자기 목숨으로 대신할 것을 하늘에 빌었던 불세출(不世出)의 효자였다. 양 부자의 효렴(孝廉)이 경상도 유생들에 의해 조선 조정에 알려져 각각 정려(旌閭)와 복호(復戶)의 은전(恩典)을 내린 것이다. </p>
	개선안
	<p> 중화양씨 효자각(中和楊氏 孝子閣) 대구광역시 수성구 향토문화유산 </p> <p> 이 효자각은 학산 양해일(鶴山 楊海一, 1797~1873)과 우산 양헌방(又山 楊憲邦, 1826~1878) 부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각이다. 양해일은 아버지가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울 때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입안에 흘려 넣어 소생시킨 적이 있을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였다. 아들 양헌방 역시 아버지의 운명을 앞두고 식음을 끊고 자기 목숨으로 대신할 것을 하늘에 빌었던 효자로 유명하다. 양씨 부자의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고종 28년(1891)에 정려(旌閭)*와 함께 후손들에게 부역과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내려졌다. 낮은 담으로 둘러싸인 효자각 안에는 ‘효자 중화양공 해일지려(孝子 中和楊公 海一之閭)’와 ‘효자 중화양공 헌방지려(孝子 中和楊公 憲邦之閭)’라는 두 개의 정려 현판이 걸려 있고, 벽에는 효행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꿩, 잉어, 매, 호랑이 등이 그려져 있다. 효자각의 앞에는 1993년에 후손들이 세운, 효자 양해일 양헌방 정려비(孝子 楊海一 楊憲邦 旌閭碑)가 있는데 여기에는 부자의 효행 사실과 정려 받은 내력이 새겨져 있다. </p> <p> * 정려(旌閭): 충신, 효자, 열녀 등을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 </p>

59) 1891년은 효자각 건립연대가 아닌 정려를 받은 시기임.

<개선점>

- 전반적으로 내용이 소략한 가운데, 효자각 자체에 대한 설명이 없음.

<수성구 누리집 설명 자료>

- 수성구 지산동 1280

- 이 효자각은 조선조 후기 효자였던 중화인 학산공 양해일(中和人 鶴山公 楊海日)(1797~1873), 우산공 양헌방(又山公 楊憲邦)(1826~1878) 양 부자 (兩 父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나라에서 정려를 내린 것이다.

효자각에는 원래 비석이 없었으나, 1993년 후손들에 의해 세워졌다.